

이 공 10

이 공 10

love talk

1. 윗해진, 혹은 윗혀져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놉시스

씨는 LA를 도피 주변에서 미국인 상대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여자. 그녀는 란을 접어 들어 사는 지역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가 연하인이다 몇몇하지 못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각지심으로 내색을 하지 않는다. 사사로움 인간관계에 연매기보다 는 일에 충실하고, 그 외의 시간은 자신이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 미숙을 강요하고, 영공 책을 읽고, 문포를 배우는 등 ---을 타국에서나마 경험하기 위해 투자하는 열성을 보인다. 그녀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생활양식은, 서풍에 두고 온 연아이를 향한 절박한 그리움과 성운 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러한 강박관념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강정을 신하게 억압 하여 스스로를 헤어나기 힘든 고독강에 빠뜨리고 만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은,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고 씨니의 집 아래층을 빌려쓰면서 서풍에 넘겨온 가족들이 이민을 떠날 것을 기다린다. 별다른 꿈도 없고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스타일로, 단지 미국이란 땅이 그에게 주는 의미는, 오래 전에 아쉽게 헤어져진 채원이 있는 곳이라는 정도로 막연한 것일 뿐 이다. 성실하지만 자신의 강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연스출에서 우연히 만난 적임 연스-파트너 헬리스에게 애정을 느낄 정도로 영웅 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젊은이.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헬렌'이라는 가명으로 심야 토크 쇼를 진행하는 채원.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방송 일을 하며 교포들의 애 정문제를 꽤 능숙하게 다루는 것으로 청취자들에게 관심을 끌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무 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구린한 없는 성격으로 좋은 집안 환경에서 성장한 그녀는, 지우본만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조 금씩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방황한다.

2. 여음, 포스앤젤레스

LA에 와서 처음 여음을 알게 된 지역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탓에 비디오 가게 일을 마치 면 집에 돌아와 씨니의 방에서 일상처럼 들여오는 작은 흑노경 소리를 들으며 친안 정리를 하 거나, 유령하게 가깝게 지내는 교포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고, 가끔은 다공터의 연스출에 서 헬리스와 만나곤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영체적인 이유로 씨니의 집에서 자취구해 일을 찾아하며 지니 피하는 그는, 씨니에게 연민을 가지고 누나처럼 대하면서도 마사에 조 작스럽게 어울린다.

마사지 풀러에서의 고민 하다가 지니면 씨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며 출애 취해 장자리에 는 마사지의 처지를 비판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면 출자 공화 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등, 후 트리지지 않고 형식에 적응하기 위해 형식적인 출애 취해 장자리에 이복 생활의 영공을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자신의 거기에서 형식적인 출애 취해 장자리에 이복 생활의 영공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속할 권리조차 잃어버린 여음이 지니고,

당겨진 채원은 자신이 전심으로 지식을 원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지식은 가족과 학치기 위해 시애틀로 떠나고,

잠마 후,

씨니는 지식을 걱정하여 캐나다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와 대학에 돈을 쥐여준다. 지식을 지니지 않은 씨니에게 화가 난 동거녀의 단동을 막으려다 자신이 다치고, 운항까지 갔던 상류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단행하기를 느끼고 낙담한다. 집으로 돌아온 지식은, 약속 하려고 하지 않지만 참되지 않고 오히려 심한 죄안감에 빠지게 된다. 지식은 그녀의 마음이 더 어머니 마저 떠나버린 상황에서 극도로 우울해진 채원은 숨을 마시고 지식과 장차리를 같이

꿈꾸고 요구한다. 고민하던 씨니는 큰히 주변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또 주황 계획을 세운다. 잠마 후 그는 씨니가 여자로서 벗어나기 위해 물러나오지 말라 부탁하며 씨니의 꿈을 돌려 줄 것을 제안한다. 씨니는 캐나다로 돌아오면 라스베가스에서 함께 동거할

해를 하고 자리를 고요를 떠난다.

나온다. 하지만 씨니 주변 사람들의 전박한 태도를 불쾌하게 받아들여 채원은 지식을 데해 오게 만난다. 라디오를 통해 만난 씨니와 채원은 서로를 처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이야기를 씨니의 집에서 벌어져 파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은 함께 씨니의 생일 파티.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는 생각에 체념하며 그녀를 기다리기로 한다. 그러면 어느 날 채원을 다시 만나고 조식스럽게 지식을 오랜만에 재회한 채원의 차가운 태도에 의아해 하지만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것은 그저 생각할 뿐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현실의 문제만으로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제부터가 무엇이 한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는 지식을 애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채원이 당혹할만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씨니는 며칠에 한 번씩 채원의 토크 쇼에 전화를 건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또는 주변의 남 로 그를 피하고, 잠마 후 사귀고 있던 강성호와도 헤어진다. 채원은 우연히 비디오 가게를 들렀다가 옛 애인이었던 지식을 만나게 되지만, 바쁘다는 핑계

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비정상적인 관계 --- 유부녀를 사귀고 있는 --- 에서 벗 어나서 또 채원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초라한 남편의 어머니를 보면서 연인과 애정

신의 것들을 전지하게 찾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채원은 씨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융화한다. 그것은 여타의 상영들과는 다르게 채원 자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정공체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씨니가 전화를 한 것은 그저 자신을 모르는 누군가와와의

어느 날, 씨니는 라디오의 한인 방송을 들었다가 채원이 전행하는 토크 쇼에 전화를 건다. 애

체원의 모험은 뉴욕의 거리에서,
그리고 그 지루한 여행,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서울 거리에서 씨나를 보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 외...

(2,1) 특이한 가공품

중년 여인

화면의 어머니

화면의 아버지

PD 룻다오 서용 PD

마사지 룻들 (1,2,3,4)

화려한

리커 룻용 룻리

화려한 룻리 룻리

화려한 룻리 룻리

화려한 룻리 룻리

화려한 룻리

화려한 룻리

화려한 룻리 룻리

화려한 룻리

(31) 가명: 룻리 룻리

화려한 룻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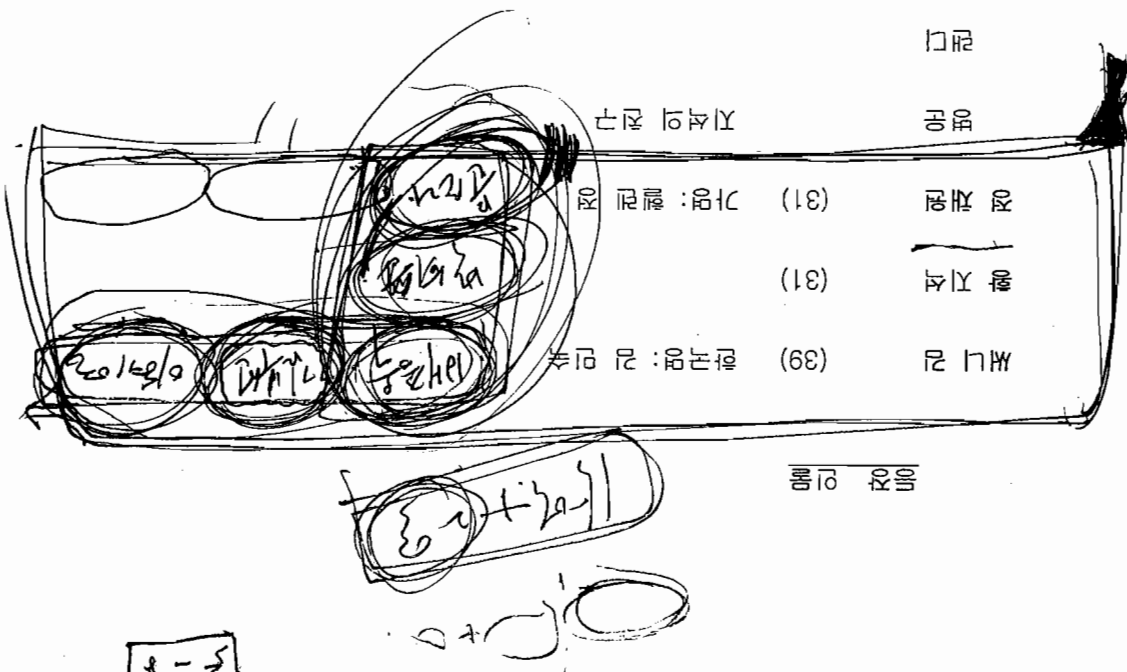
(31)

화려한 룻리

(39) 룻리 룻리: 룻리 룻리

화려한 룻리

화려한 룻리



8-5

S# 1 거리 / 지식의 차 (밤)

한적한 사거리.

정지선에 멈춰 신호를 기다리는 지식의 차.

차안의 라디오에서 경쾌한 가요가 울려나온다.

지식, 차안 가득한 담배연기에 눈을 찌푸린다. 담배를 끄고 창문을 활짝 여는 지식의 시선으로 거리를 훑어보는 여한 못차림의 백인 여자가 보인다. 여자도 지식 쪽을 바라본다.

여자를 바라보는 지식의 시선을 가리며 지식의 차 옆에 멈춰 서는 흰색 렉서스 승용차. 만종 열려진 차창으로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의 노래를 따라 가볍게 몸을 흔들고 있는 여자 (한국사람인 듯한)가 보인다. 지식의 차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노래이다. 여자가 지식의 시선을 느끼고 창문을 뚫린다.

까향게 린트가 된 창이 울라가자 더 이상 차안의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

신호가 바뀌고 여자의 차가 먼저 출발을 하면 지식, 한숨을 쉬고 차를 출발시킨다.

아까 보았던 백인 여자가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며 지식의 차 쪽을 바라본다.

S# 2

마사지 팔러, '간지' 전경 (밤)

리를 도쿄의 거리 코너에 리커 상점과 나란히 위치한 작은 마사지 전문점.

근데군데 추상이 가 있는 붉은 네온에 여체 모양의 그림이 촛스립다.

네온의 불이 꺼지면서 붉은 영의 아시아에게 여자들이 밖으로 나온다.

S# 3

마사지 팔러 / 룸 (밤)

구석의 카운터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씨니. 피로에 젖은 듯한 얼굴이다. 지식의 차에서 흐르던 그 노래가 실내에 조그맣게 들리고 있다. 여자 1이 웃음 추스르며 카운터 앞을 지나간다.

여자 1 (씨니에게) 언니, 안 랑 거야?

씨니 (쓰던 것을 멈추고 기지개를 펴며) 이거 마저 하구. 얼마 안 걸려.

여자 1 기다려줄까?

씨니 아니. 괜찮으니까 먼저 가. 밖에 랜디 보면 심심한 기더라라고 하구.

여자 1 랑았어. 나 먼저 간다.

씨니 그래, 사오나라.

여자 1 (나가다가 뒤 돌아보며) 아, 언니.

씨니 응?

여자 1 (잠깐스런 표정으로) 가계에서 한국 노래 틀어놓구 우리더라는 영본 년인 척 하라는 거... 중 공제 있는 거 아냐?

씨니, 인상을 쓰며 탁자의 카피 랑을 틀어 여자 1에게 던지는 시늉을 한다.

여자 1, 가볍게 머뭇거리며 밖으로 사라진다.

여자 1이 나가고 어두운 실내엔 라디오의 노래 소리만 흐른다.

씨니, 카운터 위의 벽장을 열고 위스키 병을 꺼내어 커피 잔에 따르려고 하지만 병은 거의 비어있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S# 4 거리 / 지석의 차 (밤)

한적한 밤거리를 탐리고 있는 지석의 차.

지석의 시선으로 멀리 다공터공의 야경이 보여진다.

계속 이어지던 라디오의 노래가 끝나고 밤자 DJ의 멘트가 나온다.

DJ (E) (경쾌하게) 네, 클래지콰이의 노래 마지막으로 들으셨구요.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차장에 드신 건 아니겠조? (포포그림 엔딩 음악 흐르면서) 자, 밖에 비가 억수랑

이 내리고 있다는데요. (사이) 해해, 북명입니다. 예? 뽀뽀하나다구요... 음, 좋은 주말 보내

시구요. 곧 나잇-. (엔딩 음악 커진다)

경향의 패트를 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석의 차를 앞차라간다.

라디오 소리 계속된다.

소리 (E) (남자) 이어서 헬렌 장의 건브 토크가 방송됩니다.

소리 (E) (CM 음악), '사랑의 다이어리, 라디오 사랑' ----

소리 (E) (여자) SBLA 라디오 사랑은 미국 전역에 걸쳐 방송되는 유일한 한인 방송입니다.

건강을 약속하는 녹원당 한의원 제온 시모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차인 목소리)

--- 푸 ---

(F.O)

S# 5 메인 타이틀

라디오의 시그널 음악 흐르면서 검은 무지에 뜨는 타이틀.

love talk

S# 6 방송국 / 북도 - - 라디오 사랑 (밤)

화면 F.I 5면 북도 유리창에 비친 채원의 모습.

그녀의 시선으로, 인적이 없는 주차장에 외롭게 켜져있는 가로등.

조그맣게 들려오는 토크 쇼의 시그널 음악. 창밖을 훑고리미 내려다보는 채원의 얼굴.

음배를 영애 가져간다. 누군가 위에서 그녀를 부른다.

소리 (남성 PD의) 음배 꺼라. 20초 전.

채원, 큰히 음배를 끄고 프레임 아웃.

스태이션 브레이크 후에 다음 전화 받았습니다. (항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E) (왕고) 미드웨이 나산의 조병공입니다. 금번 저희 팀에서는 산형 나산 세트라야
 시마를 마지막 클리어런스 세팅하고 있습니다.....

채원, 회전의자를 돌려 앉아 담배를 물어 편다.
 PD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린다.
 PD (아이참, 부쇼 안에서 담배 피면 어떡해? 공기누 안올하는데...
 채원 (E) (타래듯이) 왜 그래, 응?
 채원, 웃으면서 담배를 끄고 의자를 돌려 앉는다. 왕고가 끝나자 채원이 전행을 잇는다.

채원 (E) (어린 소녀의 어색한 한국말) 여보세요?
 채원 네, 뵙니다.
 소리 (E) 저, 앓잖아요. (사이) 다니는 처치 (church)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요.
 채원 네.
 소리 (E) 그 오빠가요, 자꾸... He wants me to give him a blow job whenever we're alone together. (동안 있을 때면 오할 섹스를 해달라요.)
 채원 미안하지만 지금... 나이가?
 소리 (E) 식스틴이요.

S# 11 거리 / 씨나의 차 안 (밤)

무표정하게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공전을 하고 있는 씨나.
 자가 신호음에 멈춰 선다.
 라디오를 켜는 씨나.

채원 (E) 오할 섹스나 인터코스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리 (E) 그래요, 오빠가 또 오할 섹스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채원 (E) 그러면 어떤 도망치지 않고, 차를 어떻게 핸들링 해줘요, 오빠를 좋아하고, 나도 하고 싶지만, 같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란라지에 가서 마음껏 하면 좋겠다, 그래봐요. 정말서 못 좋아 하면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소리 (E) 그래요, 내가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오빠가 뭐 싶어하지 않을까요?
 채원 (E) 오빠가 전을 맨이라면 언더스탠드 (understand) 할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한번 해봐요.
 소리 (E) (마지못해).....오케이.
 채원 (E) 또 전화하세요. (전화 끊어지고) 네, 영 여섯의 소녀에게 이런 상황은 무척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드립니다. 응..... 응
 채원 (E) 2부에서는 란을 드린 대로,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나
 녹음까지 합니다. 그런 경험이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전화나 인터넷
 쪽지 주세요. 전화는 213-555-6807 이구요, 홈페이지 www.lovetaik.com.....

씨나, 핸드폰 튜닝을 하고 잠시 멍청하다.
 핸드폰을 품 좌석에 내려놓고 차를 출발시킨다.

S# 12

씨의 진 / 부역 (범)

부역 쪽으로 돌아와 불을 켜는 씨니, 탁자 위에 소원 불투를 내려놓는다.
탁자 위에 불투가 놓여 있다.
씨니, 불투를 열어보면 100불 짜리 두 장과 메모가 있다.
메모를 펼쳐보면

‘지니, 란 생활비예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역!’

씨니, 메모를 구겨 던지고 돈을 다시 불투에 넣어 탁자에 놓는다.
선반 쪽으로 가서 라디오를 들고 다시 탁자 밑 와서 소원 불투 속에 양긴 것들을 하나씩 꺼낸다.
라디오의 톱크 소리가 들려온다.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외형드 타키 병을 열어 마개를 따는 씨니.

S# 13

반송국 / 스튜디오 안 (범)

스튜디오 안에 광고 방송이 틀리고, 채원은 커피를 마시고 있다.
소리 (E)(광고) (이 대근 목소리) 아니 이거, 여기가 그 씨다고 소문난 LA의 린스 전기 썰어?
소리 (E)(광고) 어? 영화배우 이 대근씨 아니세요?
소리 (E)(광고) 아니 형이나 씨런래 서롱까지 소문이 퍼진게야?
소리 (E)(광고) 린스 전기는 안 썰어도 씨다는 거 다-를 아시잖아요.
소리 (E)(광고) 아, 그래? 이 장에 가전 제품이나 응용 바꿔 볼까나?
소리 (E)(광고) 노래) 롱립과 웨스턴의 린스 전-기.
채원이 PD의 수신호와 함께 전화 상단을 계속 한다.

채원
지은 여러명께서는 헬렌 정 의 러브 톱크 2부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전화 번호, 여보세요.
소리 (E)
채원
방송하세요.
소리 (E) (씨의) 물어볼게 있어요.

S# 14

씨의 진 / 부역 (관은 시라)

부역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씨니.

채원 (E) 네, 그러세요.
씨니 이 프로그램을 거론 중는데요..... 사원들의 문제, 특히 비임스라는 이야기같은 것들을 듣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24시간 오픈'이라고 쓴 싸인 보드가 크게 걸려있는 헐리 햄버거 가게.
 양을 수 있는 탁자나 의자는 없고, 서서 먹을 수 있는 긴 탁자만이 주차장 옆에 놓여 있
 다.
 그 한쪽 끝에 지석이 홀로 서서 햄버거를 먹고 있다.
 친절해 보이는 백시강 주방장이 카운터 뒤쪽에 서서, 지석이 개런스런게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보다가

주방장

(지석에게) You want some chili on it? (칠리 더 얹어줄까요?)

지석

No, it's ok. Thank you.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한다)

주방장

It was a hot day, wasn't it? (날이 더웠죠?)

지석

Yes.

주방장

Hot day like this, business is no good, you know?

(그래서 비즈니스도 좋지 않아요. 이런 장사, 또겨울 날씨엔 참 안돼.)

주차장으로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온다.

S# 17

타미스 버거 앞 / 채원의 차 안 (밥)

문전석의 채원, 차를 주차장에 세운다. 옆자리엔 강성호가 앉아있다.

성호

(채원의 표정을 살펴며) 권디션이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

채원

(표정을 바꾸며) 그래?

성호

일이 원지 않은가 봐?

채원

그냥, 오후엔 괜히 좀 다공되는 것 같네.

성호

중쉬는 게 어렵까? 학교 다니고, 밤에 일하고, 너무 벅차잖아.

채원

기왕 시작할 건데 그럴 수는 있지.

성호

이름까지 가명을 쓰고..... 그럴 가치가 있을까? 아무리 전문하고 관련이 있다지만.

채원

(미소 띠며) 걱정마세요. 참하고 있으니까. (성호를 빙어내며) 햄버거나 사워요, 배고파.

성호, 차에서 내린다.

채원

성호씨.

성호

(차 밖에서 채원을 돌아보며) 응?

채원

내가 원 그만두면..... 우리 매일 일만 할 수 있는 거지?

성호

(당황한 듯이).....

채원

(웃으며) 그냥 해볼 소리야.

성호,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카운터 쪽으로 가서 주문을 한다.
 주문한 햄버거를 기다리던 성호, 구석에서 서서 햄버거를 먹고있는 지석을 훑어 쳐다본다.
 차안에서 기다리던 채원, 라디오 소리를 푼이고 백미리를 돌려 영문용 볼펜다가 거울에
 지석의 모습이 순간 가볍게 보인다. 다시 거울을 돌려 지석이 한 번 더 볼 조
 한다. 무심히 거울을 돌려 그를 살펴보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채원, 고개를 돌려 지석이

서있던 곳을 보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주변을 살펴보면 차 한대가 시속 20km 이하로 움직이고 있다. 차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성호가 차문을 열고 들어온다.

성호: 뭐 그렇게 보는 거야? (성호가 두리번거리며) 뭐 있어?

지석의 차가 사라져간 방향을 계속 응시하는 채원.

S# 18

씨나의 밤 (밤)

유령 등의 고가구들을 꾸며져 있는 씨나의 원형. 다소 화려하지만 여자가 유령에 뒤떨어진 듯한 취향이 느껴진다. 벽에는 온통 사진들로 복채워져 있다. 주로 모델처럼 찍은 씨나 자신의 사진들이다. 바닥에 앉은 채 침대에 등을 기대어 영공 패션을 뒤적이는 씨나. 잠지를 읽다가 불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를 하기도 하고, 수도 한 모금씩 들이키고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추억을 들여 비워진 추억을 다시 채운다. 전화가 울리고 휴대폰을 들여 탐하는 씨나.

씨나: Hello. (사이) 응? ...아직. (사이) 이제 자야지. (사이) 아냐, 잠은 무슨 중. (사이) No, No, 오후는 안돼. (사이) 이러지 마, 편디. please. (사이) 그래. (사이) 내일 봐..... 응. Good night. (전화 끊는다)

씨나, 추억을 둘러다가 사진들이 권려 있는 벽을 응시한다. 그녀의 시선으로 12화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유난히 커다란 사진이 보인다.

S# 19

씨나의 밤 (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지석, 부엌 쪽으로 가다가 이층 계단 쪽을 살짝 훑어 내려다보고 인기척을 확인한다. 조용하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내어 금잔에 따르고 식탁으로 가져가 앉는다. 식탁 위에 씨나가 사다놓은 식료품과 축, 배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다. 조용하던 이층 쪽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씨나의 통음소리를 들 수 있다. 소리는 제법 커졌다가, 감정을 억누르는 듯이 줄어들고, 또 다시 커지고 할 면서 반복된다. 지석은 그 소리에 잠시 귀기울이다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링어나 개수대쪽 가서 휴여있는 그릇들을 뒤적기 시작한다. (O.L)

S# 20

씨나의 밤 / 부엌 (아침)

(시간 경과)
판 위에서 O.L 되어 잠든 잠수인 부엌.
창문으로 가늘게 들어오는 햇빛.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가스 레인지 위에서 요리하는 지석의 모습이 보인다.

소리 (씨의) 썬데이에는 중 늦게까지 쉬어도 되는 거 아냐?

지석이 돌아보면 씨나가 간밤에 마시던 축전을 들고 부엌 입구에 서있다.
밖은 웅크리다.

지석 식사량이 하세요.
씨나 (축전을 개수대에 놓으며) 원데?
지석 그냥, 염장고에 채프가 있잖아... 끝나를 국이예요.

씨나 (식탁에 앉으며) 먹시란 고추 넣었어?

지석 넣을까요? 넣은 거 있던데.

씨나 (웃으며) 아냐, 자기 입맛대로 해.

지석이 상을 치리는 동안 씨는 창 밖의 뒤를 바라본다.

작은 정원이지만 큼게 심은 듯한 꽃들과 선행웅 의자가 그럴듯하게 놓여있다.
씨나, 란자가 지석에게 봉투를 내린다.

씨나 천천히 쥐도 돼. 나, 린트비 못 받아서 힘을 정도는 아냐.

지석 그래도.....

씨나 (웃음은 체 하고 국을 떠먹으며) 응.... 맛있네. (맛있게 밥을 먹는다)

마지막해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지석.

S# 21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 안 (아침)

공항 로비.

미국 게이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채원.

밖은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게이트를 빠져 나가고 있다.

그들 중 한국인 노신사와 중년여인이 보이자 채원이 그쪽으로 다가간다.

채원 (노신사에게) 아빠.

아버지 (반가운 얼굴로) 아이, 왔구나, 우리 댁, 어린 아이를 안 듯 채원을 품에 안는다)

채원 (웃어 보이며) 형드시죠?

아버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오는걸, 뭐, 주위를 둘러보며) 역시 공기가 후끈하네.

채원, 아버지 옆에 서있는 중년여성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

아버지

인사를 해. (채원에게) 내가 얘기했지? 이 사람이 이 효선씨.

(중년여인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딸, 채원이.

중년여인 (조선스러 악수를 청하며) 아빠한테 랑유 함이 있었어요. 미인이시네.

아버지 나 랑유하니 랑유한 거지. 안 그래? (채원을 보며) 그렇지?

채원 (축스러운 듯이 웃다가) 그만 가요. (누 사람의 카드를 받으며 영장 선다)

채원, 중년여인을 바라보는 표정이 순간 어색했지만, 웃는 낯을 없지 않으려 애쓴다.

교회 정문 앞에 지식의 친구인 병몽이 서있다.
링크에 차를 세우고 교회 쪽으로 걸어오는 지식의 모습이 보이자 그쪽으로 가는 병몽.

병몽
지식

(지식을 잡아끌며) 조금 있다가 들어가자.
왜?

병몽, 지식을 데리고 교회 건물을 뒤 정원으로 간다.

병몽 (담배를 꺼내 불며) 한 대 불고 가자지, 들어가면 불 데도 없어. (지식에게도 담배를 건넵니다)

지식 하여튼,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그것도 못 참아?
병몽 참을 참 참지. (담배 연기를 크게 내뿜으며)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피우라고 만드신거야.
지식 (담배 불을 붙이며) 차 많이 불었어?

병몽 참 마라. 요즘 코리아 타온이 불경기라서 되는 게 없어. 이상하지? 저쪽 한국이 불경기 인거 하구 여기하구 무슨 상관인 있는건지. (사이) 너 새차 불을 쬐려 없냐?
지식 지금 있는 것도 유지하기 힘들다.

병몽 Come on, brother. What the fuck is friend for?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지식 (링크 담배를 뿜고는) 그럼.... 너네 형한테 얘기하면 안될까?

지식 아직 서울에 있는 사람더라 차 먼저 사라고해?
병몽 어차피 올 거잖아? 서울 쪽 정리도 다 끝났으며, 돈도 좀 있을 거 아냐.
지식 그래봐야 가게 계약하면 별로 되는 거 없을까. 기대하지 마.
병몽 (충조함으로) 갓 댈! 내 주변엔 왜 이렇게 가난한 인간들만 있는 거야?
지식 (담배를 신랄 원장에 비벼고며) 들어가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너네 아버님한테 인사해야지, 아니면 또 안 왔다고 화내신다.

모나베헤 호텔 주차장을 빠져 나오는 채원의 차.
채원, 라디오를 켜다.

소리

(E)(DJ의)하시엔다 하이츠에 사시는 최 지은씨께서 보내신 편지였는데요, 부디 서둘러 계신 아버님의 영세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참 이런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원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무튼 고향을 멀리 두고 사시는 우리 꼬인 여러분들 모두, 서풍의 좋은 소식만을 들으며 마음은 좋을 수 있어야 할텐데, 자, 노래를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드려겠습니다.

채원, 공전을 하며 핸드백을 뒤져 담배갑을 꺼내지만 비어있다.

S# 24

AM&PM 주유소 앞 (날)

주유소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다이어트 컵을 사서 나오는 채원.
 목이 마른 듯, 컵을 따서 한모금 마시고 잠시 서있다가 핸드백에서 휴대권을 꺼내고,
 잠시 마뭉거리다가 다이얼을 누르는 채원. 신호음 후에 자동응답기가 작동되며 여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리

(E)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beep. (삐 소리 후에 메모 남기세요.) 여기는 강
 성호와 한미선 부부의 전입니다. 지금 저희는 외출중이니.....

채원, 전화를 끊는다. 표정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담배를 한 대 물어 핀다.
 누군가 채원을 부른다. 주유소의 직원이 께함을 가리킨다.

NO SMOKING

S# 25

LA 카운티 미술관 안 (날)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실내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다.
 예초에 관심이 있는 듯한 백인들이 대부분인 사람들 사이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씨나의
 모습이 보인다. 씨나,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조각품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다.
 어느 여자가 아이 조각상 앞에서 멈춰 선 씨나.
 마르지 풀러에서의 그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모습이다.

S# 26

채원의 집 (날)

LA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힐리웃 힐 언덕에 위치한 고급 콘도미니엄.
 전원이 좋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거실.
 채원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채원이 거실로 들어온다.

채원 나 왔어요, 엄마.
 (채원을 돌아보며) 이것 좀 봐서 보렴. 요즘 서로서로 인기가 있는 드라마래.
 채원 중 씨구. (욕실 쪽으로 돌아서는데)
 어머니 (간지기가 생각난 듯이) 어, 아빠 줘 모셔다 드렸니?
 채원 응. 보나볼래? 호텔로 가져와.
 어머니 (TV쪽에 시선 곧 채) 고집은, 여전하구나. 거기보다 좋은 호텔도 없는데.
 채원, 다시 돌아서서 소파에 앉으며 담배를 물어 핀다.

어머니 나도 한 대 주렴. (담배를 받아 피우며) 그 여자도 봤잖아.
 채원 응.
 어머니 어 뭘?
 채원 뭘... 그냥, 괜찮아 보이던데.
 어머니 그렇지. 네 아빠 죽어 형이 형이 형이 죽었는데.

지석 (비디오를 하나씩 가리키며)이건 SBS 참사 특집인데, 차승원이 출연이구요. 이걸 새
 로 시착한 시트콤인데 다들 재밌다구 그러세요. 그리고..... 성인 영화는 안 보세요?
 요즘 인터넷 방송 카피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영본 것도 참나가고.....
 손님 그냥 앉아서 한 몸 개 붙여줘요. 마누라가 보지, 단 췌 안보니까.
 지석 네. (비디오 좌석 쪽으로 간다)
 손님 혹시 그거 있나 모르겠네. 크리시인가 크리스틴인가 하는 한국 유학생 애가 나오는 포르
 도가 있다던데.
 지석 있어요. 드릴까요?
 손님 같이 붙여 줘봐요.

S# 28 비디오 가게 안 (밤)

손님 차에서 내린 췌나가 현관 쪽으로 돌아서자 랜디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췌나의 차가 집 옆의 주차장에 멈춘다.

S# 27 췌나의 집 앞 (저녁 무렵)

한층 짙는 옅마의 영광을 바라보는 채원.

어머니 (2층으로 올라가며) 이제 췌마 스물하고 한 세메스터만 하면 되는군, 워
 어머니 (근심스런듯) 그놈의 공부만 하다가 붙어주겠다 애.
 채원 밤에 해야 되는 거니?
 어머니 무슨 스타디를 밤에 하는건지 모르지만, 너 건강 해볼까봐 난 매일 걱정이야. 그거 꼭
 채원 아니. 할공일이잖아.
 어머니 오늘도 밤에 나가니?

채원, 몸을 일으켜 어머니를 한 번 붙어안고 소파에서 일어나는다. 식탁 위에 옅마가 마시
 다 만 듯 한 외인 잔이 채원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채원 (태연한 웃으며) 옅마, 괜찮아?
 어머니 뭐가?
 채원 괜찮은 거지?
 어머니 (잠시 말이 없다가 채원을 보고 미소지으며) 난 네가 있잖아. (채원의 머리를 쓰다듬으
 며) 정말이야.

채원, 대꾸없이 어머니의 눈치를 살펴다가 옆으로 다가가 권구처럼 어깨를 감싸안는다.

어머니 (TV에 나온 탈린트를 가리키며) 재가 이름이 뭐니? 난 재가 좋더라.

두 사람, 잠시 말없이 TV를 응시한다.

링크에 차를 주차시키고 문을 열다가 멈춰하는 지석.
집에서 랜디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멀리 보이자 다시 차 문을 연다.
지석, 랜디가 차에 올라타고 떠날 때까지 백미러로 바라본다.
잠시 후 차에서 내려 전 쪽으로 걸어다가 씨니의 방이 있는 이층을 바라본다.
창가에 씨니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녀도 창 밖으로 지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씨니의 전 방 (밤)

S# 31

지석이 앨리스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맨스룸로에서 나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간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흑인 남자, 편지 카드를 꺼내어 보고는 지석에게서 돈을 받는다.
지석, 앨리스에게도 이찬 볼 지폐 두 장을 건네준다. 앨리스가 인구가 지석을 따라나
가 그의 뺨에 키스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다가 다들 큰 울음 속내에게 다가간 것 같게 안
다. 지석, 앨리스의 뒷모습을 잠시 보다가 밖으로 나간다.

맨스룸 '매드 캣' (밤)

S# 30

씨니, 문앞이 권총을 빼앗아 자신이 베고있는 베개 밑에 넣는다.

랜디, 뭐야, 이거?

랜디

랜디가 문을 열고 담배를 찾아 불을 붙여서 누워있는 씨니의 입에 물려준다.
베개를 세워 등을 기대려던 랜디, 원가 손에 묻어 창대를 더듬는다.
권총이다. 직장이 녹아있는 랜디.
씨니와 랜디가 정사를 하고 있다.
침실에 이를 듯이 신음하는 두 사람. 씨니의 그것은 마치 웅음소리와 같이 들린다.
(시간 경과)

씨니의 방 (밤)

S# 29

지석 (주인에게) 오늘은 안 했어요?
주인 응, 갔다왔지. 왼쪽 턱고 묻어.
지석 (주인에게) 응, 응... (담배를 피워물며) 이놈의 미국 할양구들은
문전쳤다. 항상 마판 카드가 안떠주네, 참... (담배를 피워물며) 이놈의 미국 할양구들은
무슨 포커를 그렇게 참치는지.

지석, 비디오를 풀라 볼투에 담는다. 가게 주인이 들어온다.
지석, 손님이 나가자 벽시계를 본다. 밤 11시를 조금 넘었다.
TV 모니터 화면으로 '생방송 인기가요'가 보여지고 있다.

S# 32

USC 대학 교정 (낮)

도서관 앞.

학생들이 분주히 오고가고 뿔뿔은 계단에 앉아 책을 보거나 뭔가를 먹고 있다.

한쪽엔 타코를 파는 이동식 음식점이 있어 학생들의 주문을 받고 있다.

채원도 그들 위에 서서 타코와 커피를 사고 계단 쪽에 와서 앉는다. 그녀의 옆으로 동판

모 보이는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와서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채원, 그들과 대화하면서도 시선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

S# 33

마사지 찜러 / 룸 (낮)

채원이 여자 2를 불러 카운터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채원 3번 물어봐.

여자 2 Regular? (단골?)

채원 아니. 처음 보는 여자인데.... 엑스트라는 해주지마. He smells like a cop.

(경황 변화가 없게.)

여자 2 What if he asks? (요구하면 어떻게?)

채원 영어를 못하는 척 해. 그래도 다 그치면 다시 나와. 내가 대신 물어줄게.

여자 2, 흠 안쪽 방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손님이 마사지 찜러 안으로 들어온다.

채원

(화장실 문을 열어 보이며 손님에게) 이리서야 맞세, 찜러.

를 한 쪽에 서서 문배를 피우고 있는 찜러 옆쪽복의 찜러, 손님을 안내하고 있는 찜러를 바라본다.

S# 34

비디오 가게 안 (밤)

가게 주인, 신문을 보고 있고 지석은 찜러 옆에 또겨울 물을 붓고 있다. 비디오의 노래가 끝나고 아나공사의 엔트가 이어진다.

(E) 다음은 찜러 라스베가스에서 연락을 주신 분인데요. 사람을 찾으신다구요.

(E) 남자의 전화 목소리) 네.

(E) 찾으시는 분의 신상, 그리고 연락처를 말씀해주시죠.

소리 (E) (전화) 이들은 김 민숙, 8년 전에 미국에 왔고, 나이는..... 한국나이로 39살, 보통 키에 조금 말랐고,

소리 (E) 특징같은 건.....?

소리 (E) 큰췌..... (양해이다)가 이런 게 특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양쪽 손목에 상처가 있어

요. 그 뒤, 자살 마크라고 해야 되나?

라디오를 들으며 찜러 옆을 받아드는 가게 주인.

뭔가 생각난 듯 한 표정의 지석.

주인 Shit, 참럽하다, 참럽해. 그런 여자를 뭐 하러 찾아. 만나봐야 평생 고생이지. 아무튼 과거가 수상한 여자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 (신공을 쫓고 시계를 보며) 나가야겠다. (영아 서는데)

지석 오들도 다우니로 가요?

S# 35

마사지 룰러 / 룰 (밥)

어두운 조명의 좋은 방안에 침대가 있고 비대한 체구의 백인 남자가 엎드려 누워 있다. 씨니가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릴에 서서 마사지를 하고 있다.

씨니 (사내의 목 부위를 주무르며) You like it harder? (세게 할까요?)

남자 Harder? Meaning what? (세게...? 무슨 뜻이지?)

씨니 (질문하 말한다) Do you want me to massage harder or softer? (마사지를 세게 할까 요, 아니면 약하게 할까요?)

남자 Oh, sorry, sorry. I thought you meant something else.. (아---, 미안 미안. 난 또, 다 른 뜻인줄 알았지.) Make it harder, please. (세게 해줘요.)

씨니, 표정의 변화 없이 능숙하게 사내의 목 근육구역을 마사지한다.

씨니의 양 팔목에는 권은 상처가 보인다.

남자 What can you do for me besides massage? (마사지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씨니 Everything but marrying you. (음산과 결혼하는 거 빼고 다 해요.)

남자 (크게 웃으며) Damn, that's what I want to do. (큰일인데?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씨니 (중단스럽게 사내의 등을 한 대 때리며) Shut up. (일락쳐요.) (마사지를 잠시 멈추고)

남자 You want extra service? (서비스 받으실래요?)

남자 Sure. Why not? (그리지, 뭐)

씨니 It'll cost you. (추가요금이 있어요.)

남자 Whatever... (말대로...)

씨니, 남자의 패턴을 내리곤 마사지 요령을 손에 바르곤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기 시작한다.

여색한 침묵 속에 작은 오디오 스피커에선 Percy Faith의 'Summer place'가 기묘하게 들려오고.

씨니의 손 움직임이 계속 되자 남자의 신음 소리가 또 들려온다.

동행, 하며 사정하는 남자.

씨니, 능숙하게 터수를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남자의 가슴을 어린 아이 만지듯이 쓰다듬어 준다.

S# 36

거리 / 채원의 차 안 (밥)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중 하고 있는 채원.

소리 (3)(광고) 나폴레옹 성인 디스크 팩이 새롭게 단장하고 그간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공배 잔치를 열립니다. 양주 만병 맥주 롤 양주 롤에 89볼, 양주 1병 맥주 셋 양주 셋에 129볼, (다들 볼소리듣) 한 --- 골짜기 좋은데! 양주도 푸짐하고! 379와 영아바라다에 영

소리 (E)(DJ) 네, 박씨가 많이 더워졌조? 올 여름 바캉스 준비들은 되셨는지요.... 어? 어떤 볼 이 메신저에 이렇게 쓰셨네. 바캉스가 뭐냐. 미국까지 와가지구는. 허-참. 죄송합니다. 베케이선! 됐습니까?

채원, 시계를 본다. 11시 10분. 지갑에서 핸드폰을 꺼내 본다. 배터리가 나간 상태다. 차를 돌려 공중전화가 보이는 한인 스텝 센터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S# 37 주차장 / 공중전화 앞 (밤)

전화를 걸기 위해 동전을 찾는 채원, 주머니와 핸드백 어디에도 동전은 없다. 주변을 둘러본다. 대부분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비디오 가게의 간판만이 밝게 켜져 있다.

S# 38 비디오 가게 안 (밤)

지석이 회수된 비디오들을 잔뜩 들고 원래 있던 자리에 하나씩 돌려 놓고 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 채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채원 (두리번거리며) 저, 죄송하지만..... (테이프를 정리하면서) 어서 오세요.

지석, 비디오를 잔뜩 든 채 채원 쪽을 돌아본다. 누 사람, 서로 마주 보고 바라서 한동안 말이 없다.

채원 (특란 표정으로) 황..... 지석? (아색하게 웃으며) 오랜만이야.

채원 너..... 왜 여기 있어? 지석 응?

채원 어떻게 된 거냐구. 지석 어떻게 되긴 뭘, 여기서 일하고 있어.

채원 (아이었다는 듯이 웃으며) 정말, 세상이 좋다.... 지석, 비디오를 카운터 위에 놓는다. 누 사람, 잠시 아색하게 말이 없다.

채원 미국에 언제 온 거야? 지석 용케 뭘 봤어.

채원 나, 정말 놀랐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지석...그렇게.

지석 누 사람, 할말을 찾는 듯 잠시 말이 없다. 뭐, 커피라도 한잔 좋까? 사있지 말고 이리 틀어와 앉아서.....

채원 (갑자기 생각난 듯 시계를 보며) 어떡하지? 나 지금 가봐야 돼.
 (나가면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미안해.
 (따라 나가면서) 언제?
 채원 (잠시 생각하고) 내가 연락할게. 여기 비디오 가게로 하면 되지? (다시 나가려는데)
 지석 자기.....
 채원 응?
 지석 여기에 비디오 빌리러 온 거 아니었어?
 채원 아아, 참. 동전 바꾸려 안퐁고 내 정신 좀 봐.
 지석 동전은 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채원 큰히 전화할 데가 있었거든.
 지석 여기서 권어도 되는데.
 채원 아, 아냐. (동전을 받으며) 고마워. 다음에 갈게. (밖으로 나간다)

지석, 채원을 부르려다가 그만둔다.

주차장 / 운동전화 편 (밤)

S# 39

전화를 받고 있는 채원, 반신응통 들으며 서있다.
 비디오 가게 쪽을 바라보면 연구 유리문 안쪽으로 지석의 모습이 보인다.
 상대방에서 전화를 받는다.
 강석호의 목소리.

(E) 헬로우.

채원여보세요.

(E) 네, 여보세요.

채원 나예요.

(E)응, 웬 원이야? (담화하는 듯) 몇시지? ... 많이 늦었네.

채원안 좋은 시간에 전화한 모양이다. 다음에 다시 할게.

(E) 아냐, 괜찮아. 얘기해.

채원 그냥 있었어요. 며칠 학교에서 안 보이질래.....

(E) 응. 장모님이 외계에서 왔어. 어디 중 갔다왔어. 지금 어디야?

채원 프리아 타공. (사이) 나 있었어요, 서릉에서 일단 친구를 받음 받았어. 우연히.

(E) 그럴 수 있지. 여간, 생각보다 좋은 데니까.

채원 그래요, 특별지 않아? 이 면에서, 미국영에서 다시 만난다는 게.

(E) 그 얘기할려고 전화 한 거였어?

채원, 상대방의 반응이 차가운 편 느낀다.

채원 ...왔어. 얘기하기 곤란한가 봐데.....

(E) (탐라듯이) 있잖아. 내가 내일 전화할게.

채원 그래요.

(E) 조선해서 가.

채원, 원없이 전화를 끊는다.

비디오 가게 쪽을 바라본다. 채원을 바라보는 지석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인다.

S# 40

마사지 풀러 앞 (밤)

영양이 끝나고 비몽도 꺼져있는 씨니의 가게.
랜디, 몸이 잠깐씩 확인하고 영보 장치를 작동시킨 후 씨니에게 영쇠를 건네준다.

씨니

수고했어, 랜디. 곧 나있. (돌아서서 걸어간다)

랜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다.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씨니, 다시 랜디에게로 온다.

씨니

왜? 할말 있어?

랜디

.....

씨니 What? Talk to me. (왜 그래, 응? 말해봐.)

랜디 Can I go with you? (오늘.... 같이 있으면 안될까?)

씨니 (난처한 듯) 미안한데,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I am really tired. (중 피곤하거든.)

Sorry.

랜디, 머뭇거리다가 손들어 인사하고 뒤돌아 서서 간다.
씨니,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리커 상점 쪽으로 간다.

S# 41

리커 상점 안 (밤)

씨니가 상점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아저씨, 변함없는 얼굴로 그녀를 맞는다.
씨니, 카운터 옆으로 가서 새로 나온 장지를 하나씩 꺼내본다.

S# 42

씨니의 집 / 지석의 방 (밤)

어두운 지석의 방.
지석, 스탠드를 켜고 옷을 갈아입는다.
책상 앞에 앉아 영어 영어 회화 교재를 펴는다. 교재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여있다.
사진은 오래전의 지석의 모습(이순대 초반)이다.
지석의 사진에서 O.L

S# 43

레스토랑 '데니스' (낮)

앞에서 O.L. 되어 지석의 채원 옆으로.
채원, 강 성호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

성호

형은 괜찮아? 할만해?

채원

그야, 뭐. So far so good. (그런 대로.)

성호

깨웠지? 포로 말은 지도. 한.... 용개황?

채원 덕분에 애정문제, 섹스문제에는 도사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성호 (웃으며) 그게 뭐 나쁜것만은 아니잖아.
 채원 당신 와이프가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
 성호 (표정이 바뀌며)그건 또 무슨 소리야?
 채원 (표정이 되든 상관없는 거지, 당신 입장에서 보면, 나아지잖아)
 성호 (잠시 말이 없다가) 평소담지 않게 오는 왜 이래, 응?
 채원 (식사를 멈추고) 나다음 게 뭔지 얘기 중 해줘, 그대로 할 테니까.
 성호 (주변을 의식하며) 그만 하자. 밥 먹다 싸우고 싶지 않다.
 채원 왜? 우리도 밥들처럼 한 번 싸워 보자구.
 성호 (난처한 얼굴)
 채원 안되지? Anyway, we're not having normal relationship. (아차피 우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채원,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성호의 시선을 피해 식사를 계속한다.
 채원 (몸과 강성호의 샌드위치 접시를 가리키며) 그 애그 샌드위치 다 먹을까요?
 성호 응? (자신의 접시를 내려다보고는) 아니. 먹을까?

랑리브의 해변에 위치한 작은 카페.
 한빛의 행차이 또랑게 내리는 테라스에 지식과 영혼만이 남아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해변의 모래사장에는 몇몇 백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배회하고 있다.
 테라스 한쪽에는 작은 싸인 보드에, 갈매기의 꼬비롱이 당신의 음식물에 떨어져도 벌어진 소는 책망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영민 (한 백인 여자에 시선을 두고) 야, 저가 봐라. 저 탄탄한 뺨을, (대꾸없이 코로나 맥주병을 만지작거리는데)
 영민 우리도 수영이나 한번 할까?
 지식 (잠시 말을 멈추고) 너랑으면 할이지, ...아니다.
 영민 (마거라타를 핏코 마시며) 뭐야, 할하다 하고.
 지식 있잖아..... 한 8년만에 네가 좋아했던 여자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나?
 영민 확 따먹지.
 지식 (한숨 쉬며) 너한테 물어볼 내가 바보다. 관두자.
 영민 (웃으며) 알았어, 알았어, 응당 안 할게. 얘기해봐.
 지식말마 전 누른 우연히 만났는데, 8년 전에 헤어져 여자 애였어.
 영민 한국에서 왔던 여자?
 지식 (고개를 끄덕이고) 기본이 모하더라구.
 영민 왜 헤어졌는데?
 지식 정확히 말하면 헤어졌 거라고 할 수도 있지. 개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그냥, 혼자부지 연락이 끊긴 거니까.

고 지석에게 돈을 받는다. 지석, 헬리스에게도 돈을 쥐어준다.

지석 헬리스 Can I see you outside the club, next week? (다음주엔 나와줄수 있는거지?) Mmm..... (잠시 생각해) OK, Next week.

헬리스, 지석에게 키스로 인사하고 스테이지 옆의 긴 소파에 앉아있는 엑시퀀 탭자에게 다가간다.

S# 47

연스 홀 건물 / 엘리베이터 안 (밤)

범공과 지석이 향없이 서있다.

범공, 램자가기 키득키득 웃는다.

지석 왜 그래?

범공 (계속 웃으며) 너, 여기 자주 오니?

지석 자주는 아니고.....

범공 좋아 좋아서 오는 거야? 아니면..... 저 엑시퀀 여자 애 보러? (다시 퀘릴 웃는다)

S# 48

연스 홀 건물 / 주차장 (밤)

환적하고 어두운 주차장.

차 쪽으로 향아가는 지석과 범공.

범공 재왕 어디까지 갔나?

지석 (범공을 바라보다가) 재는, 여기 있는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아직 순진하다구.

범공 순진? (아이없는 듯) My god..... 누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다.

지석 내 형은 내가 형아서 하나까 왕견하지마라.

범공 어쨌게, 왕견이라도 할거니? 돈 받고 왕견주는 애한테? (크게 웃는다)

지석 (산영친척으로) 아이 왕, 자꾸 이쪽거릴래?

범공 귀여워서 그렇다. 너 하는 것이.

지석 (큰소리꾼) 너나 왕해. 응?

범공 (기분 상한 듯) 왜 나한테 지왕이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석 내가 왕하든, 어떤 녀를 만나든 상관 왕라구, 왕았어?

소리 (근처에서 들려오는) Hey, Shut the fuck up. (조용히 해.)

지석 (그쪽을 향해) You shut the fuck up! (너나 조용히 해!)

소리 틀려온 쪽에서 아무 대꾸가 없다.

두 사람, 틀어보면 어둠 속 자동차에 기대어 서있는 세명의 엑시퀀 사내들이 보인다.

범공, 왕새가 이상한 듯 왕현응이 뿐라진다.

범공 (나지막히, 하지만 다급하게) 빨리 왕어, 왕들어보지 왕고.

소리 (뒤따라오는 엑시퀀 사내의) Hey, chingi! (야, 짱왕라!)

지석, 곧히 차쪽으로 다가가려하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S# 55

추차장 (남)

채원의 차 앞으로 뛰어와서 멍척서는 채원과 성호.

성호 (채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주 연락을 끊고 싶지는 않... 아니지?

채원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을 애정 문제를 상정한다면 내 자신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런 내 자신이 가슴스럽고... (피식 웃으며) 아이 참, 어느 영화에선가 유부남을 만났던 때는 마스크라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 헐리 맥클래인이 그랬어. 참 예뻐는데... (애써 웃어 보이며) 하지만 참 되지 않는다) 참 우습다. 지난주에도 다섯 명의 여자한테 참고 기다리라는 충고를 해줬거든.

성호

채원아, 갑자기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채원

(성호를 바라보고 웃어 보이며) 죄지는 사람 같은 영문 하지만, 안 어울리니까, 영민 같은 것도 갖지 말고, 여자피나, 그다지 손해볼 거 없어요. 성호씨가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S# 54

USC 대학 / 강양 (남)

영민 강양 객석에 앉아있는 채원과 그 옆 쪽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강 성호. 문은 표정으로 말이 없는 두 사람. 적막감이 감돈다.

S# 53

그리피스 파크 (남)

문포 가방을 들고 연승장에서 나오는 씨나. 주차장 옆의 잔디밭에 다리를 뻗고 앉는다. 따사로운 햇살이 씨나의 눈을 부시게 한다. 건너편 피팅 연승장에서는 백인 여자가 여자가 영미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공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씨나, 그들을 보다가 흥분한 표정으로 일어선다.

S# 52

USC 대학 교정 (남)

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 동료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채원. 건너편 쪽으로 강성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성호가 채원을 향하여 여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한다. 채원, 그에게 가볍게 웃어 보인다. 성호의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그 쪽을 바라본다.

채원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네, 있어요.

씨나

(E) 여보세요?

채원 그런 식으로 끝까지 좋은 인상 남기려고 하지 마, 나, 마음이 좌충우돌리거든.
(웃어 보인다)

채원 라디오 틀으면 채원이 생각이 많이 남는데.

채원 상담할 일 생기면 꼭 소문 전해주세요. 딱히 할런 점이 없으셨다면 면해 드릴게.
(차 운전석에 타고 시동을 건다)

채원 (커피 한잔을 쉬고)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채원 들어가요. 클래스 닷겠다.

채원, 차를 출발시키고 음미러로 성호가 서있다가 돌아서는 모습을 본다.

금방 통증을 타도릴 듯한 표정이 되지만, 어렵게 자제하는 채원.

크게 상호작용 한다. 라디오를 켜다.

소리 (E)(DJ) 지금 여러분께서는 권 영앗간 제운 라디오 서용의 한뉘의 희망 꼭 듣고 계신나
다. 현재 LA 기온은 화씨 89도, 아스팔트가 타고 있습니다. 콘스 웨리초에서 영 영산세
가 보내오신 사연 원용게요.

S# 56 비디오 가게 (저녁)

지석이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다.

전화가 걸려오고 지석이 받는다. 채원의 전화다.

채원 (E) 나야, 채원이. 바빠?

지석 (손북을 한 번 쳐다보고) 응, 아냐. 얘기해.

채원 (E) 내일 저녁 중에 시간 있어?

S# 57

배틀리 센터 (낮)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백화점 안.

지석, 화장품 코너에서 향수 샘플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이목을 끌어들여 손에 뿌려 냄새
도 맡아본다. 정원이 다가가와 제품 설명을 해준다. 영산히 들고 있는 지석.

S# 58

센터리 시티 플라자 물 (낮)

아이들을 위한 주니어 옷가게에서 옷을 하나씩을 훑어보고 있는 채원.

아이들을 위한 주니어 옷가게에서 옷을 하나씩을 훑어보며 이목을 끌어들여 손에 뿌려 냄새
도 맡아본다. 정원이 다가가와 제품 설명을 해준다. 영산히 들고 있는 지석.

S# 59

피코 한인 교회 앞 (낮)

교회의 뒤를.

파라솔 밑에 앉아있는 영산과 지석.

(시간 경과)

채원: 정말 오랜만이다.
지석: 응.
채원: (잠시 없었다가) 참 이상해. 이렇게 마주 앉으면 할 얘기가 무척 많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 잠시 말이 없다.

채원: I know you're just trying to be nice. (거짓말인 줄은 알지만, 역시 넌 매너가 좋아.)
지석: ...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채원: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나, 나이 많이 들어보이니?
지석: 차 타고 지나가다가는 봤는데. 이런 식당 룡 형이 거의 없어.
채원: 설마 이런 데 처음 와본 건 아니겠지?

채원: (자석이 돌아오자 지석, 주변을 둘러본다.)
채원: (자석이 마주 앉은 테이블.
자석이 돌아오자 지석, 주변을 둘러본다.)

S# 61 레스토랑 안 (밖)

안내원: (채원에게 다가와) 미스 정.
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예스.
안내원: Your table's ready. (테이블 준비됐습니다.)
채원: (채원에게 다가와) 미스 정.
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예스.
안내원: Your table's ready. (테이블 준비됐습니다.)
채원: (채원에게 다가와) 미스 정.
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예스.
안내원: Your table's ready. (테이블 준비됐습니다.)
채원: (채원에게 다가와) 미스 정.
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예스.
안내원: Your table's ready. (테이블 준비됐습니다.)

S# 60 이탤리언 레스토랑 후치아노, 영구 (밖)

지석: (병공의 음배에 불 붙여주며) 흥 나아졌냐? (병공의 어깨를 만진다.)
병공: (고들스러워하며) 아, 아. 만지지 마.
지석: 아직 아픈 모양이구나....
병공: 오늘 저녁때 뭐해?
지석: 왜?
병공: 애들 두 명 나오기로 했거든.
지석: 여자?
병공: 당연하지, 자식이야. 그런 걸 물어보냐.
지석: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병공: 너, 애네들은 확실하게 주는 애들이다. 참 생각해. 너 마지막으로 해볼 게 언제냐?
지석: 안된다니까.
병공: ...그 여자랑 약속 있구나? 맞지?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석과 채원.

채원 여자친구 없어?

지석 응? 응.

채원 그 나이에 여자친구도 없으면 어떡해.

지석 뭐, 어떻게 되겠지.

채원 하긴, 나도 노쳐녀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도 난 애인은 있다, 나.

채원 웨이더가 테이블을 치우려 온다. 채원이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한다.

채원 (잠시 생각하다가) 사춘 너한테 빨리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찌다보니 이렇게 늦어졌어.

지석 미안해.

지석 괜찮아,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여기서 다른 바쁜 것 같더라구.

채원 그리고.....

지석 응.

채원 사춘은, (잠시 말이 없다가) 사춘은 말야, 연락을 안 하려고 했어.

지석 왜?

채원 너무 이제 할 거 아냐. 여기 생활....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 쉽지 않아....

나, 하고 있는 일들이 많거든. 네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사이) 예전 같을 수 없잖아.

채원, 지석의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본다.

S# 62

레스토랑 앞 (낮)

여색하게 서있는 지석과 채원.

주차원이 채원의 차를 뚫고 와 앞에 세운다.

채원 먼저 갈게.

지석 (머뭇거리다가) 저기...

채원이 돌아서자 지석이 주머니에서 포장된 상자를 꺼내어 건네준다.

지석 선물이야, 물건 아니지만.

채원, 말없이 상자를 받아들고 자신의 차를 탄다. 지석을 한 번 바라보고 차를 뚫고 떠

난다.

지석, 말아져 가는 채원의 차를 어렵게 지켜본다. 주차원이 와서 지석의 어깨를 두드린

다.

자신의 뺨은 차가 량가에 대기하고 있다.

S# 63

씨나의 방 (밤)

잠사를 하고 있는 씨나와 렌다.

렌다, 몸에 젖은 채 씨나의 몸을 더듬으며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

아니래도 상관없어.
랜디, 체념한 듯이 천천히 웃음 읽는다.

랜디 (웃음 읽다가)..... 하나만 얘기할게. 네가 이러는 거,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오히려 동정
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냐? 난 이래, 난 이러니까 너희들이 날 이해해 줘,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냐?
썬니 (표정이 굳어지며)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마.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할거니까.
랜디 그래봐야 소용없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봐야 넌 될 수 없을 거야. 누구냐 마장가지야.
썬니 그만 가 줘.
랜디 거름포 너를 봐. 동정 받는 나와, 동정 받고 싶은 나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썬니 (영랑지개) 나가! Get out!

썬니, 랑지가 재빨리를 잡아 거름에 던진다. 거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진다.
랜디, 한동안 썬니를 바라보다가 밖에서 나간다.
썬니, 깨진 거름에 바쳐 영랑지개 보이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본다.

S# 64 썬니의 집 앞 (밤)

집을 나서는 랜디, 언박치에서 려어 오고있는 지석과 눈이 마주 치고는 잠시 멈춰 선다.
랜디, 씩씩한 미소를 흘리며 지석을 지나쳐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간다.
지석, 썬니의 앞 좌공을 물려다본다.

S# 65 썬니의 방 (밤)

한동안 창대에 기대어 방바닥에 누워커니 앉아있던 썬니, 베개 밑에서 권총을 꺼낸다.
총구를 천천히 자신의 목에 들이댄다. 양아쇠를 잠금 손이 가능하게 열린다.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그 자세로 벽에 있는 영의 사진을 바라본다.
꼭기에 서서히 목숨이 고이면서, 힘없이 총을 내려놓는다.
창 밖으로 랜디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려온다.

S# 66 썬니의 집 / 복행 (밤)

언박고에서 우유를 꺼내어 병 채운 마시는 지석.
위층에서 썬니의 흐느낌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온다.
지석, 개수대쪽으로 가서 물을 들고 그곳들을 뒤기 시작한다.

S# 67 포스앤첼레스 국제 은행 (아침)

아버지와 중년여인을 배웅하는 채원.
아버지 서둘러 가서 휴 생각해 줘야? 잠시 쉬다, 생각해하고.

어머니 (TV를 보며) 저거 좀 봐라. 저를 아저니. (노를까지 쓴다)
 채원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저, 저, 제 방에 있을게요.
 어머니 (잠시,)
 채원 응?
 어머니 (내향 모래 아이에이아에 란 거야,
 채원 이모한테?
 어머니 (개가 울이 안 좋아졌나봐. 몇 번 전화를 해서 안 좋아하더라구.
 채원 (가요. 라디오에 이모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럴 땐 되겠네.
 어머니 (가게 가는 건데,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응.....
 채원 (복 걱정 다하셔. 나도 좀 한동안 편하게 추로로 있어볼시다. 비? (웃어 보인다)

어머니 (아빠 한 거였나?
 채원 응.
 어머니 (TV를 보며) 저거 좀 봐라. 저를 아저니. (노를까지 쓴다)
 채원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저, 저, 제 방에 있을게요.
 어머니 (잠시,
 채원 응?
 어머니 (내향 모래 아이에이아에 란 거야,
 채원 이모한테?
 어머니 (개가 울이 안 좋아졌나봐. 몇 번 전화를 해서 안 좋아하더라구.
 채원 (가요. 라디오에 이모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럴 땐 되겠네.
 어머니 (가게 가는 건데,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응.....
 채원 (복 걱정 다하셔. 나도 좀 한동안 편하게 추로로 있어볼시다. 비? (웃어 보인다)

채원, 잠시 TV를 보다가 일어선다.
 어머니 (그러면 어때? 재미만 있을 땐 되지.
 채원 (저런 거 손 거지 않아야, 응마. 함도 안되는 애기들이라구.
 어머니 (TV를 보면서) 저거. 미니 시리즈 마지막이야. 너무 봐봐. 응마나 승문지 몰라.
 채원 (응만, 될 그 할게 정신이 빠져서 보는 거야.
 어머니 (안 제 왔어? 소리도 없이. 깜짝 놀랐잖아.
 채원 (어머니, TV를 보며) 저거 좀 봐라. 저를 아저니. (노를까지 쓴다)

어머니는 TV에 집중하더니, 채원이 자신의 옆에 와서 앉은 다음에야 인기척을 느낀다.

S# 68 채원의 전 (복)

손을 흔들며 게이트 안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와 중년여인.
 아버지 (아빠 간다.
 채원 (아, 아나예요. (원가 힘을 하려다 그만 뜬다)
 아버지 (아빠, 응?
 채원 (아빠, 응?
 아버지와 중년여인, 게이트 쪽으로 향한다.
 중년여인 (채원의 손을 잡으며) 덕분에 참 있다. 가요. 또 봐요.
 채원 (중년여인에게)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중년여인을 보며) 애들이 이렇다니까.
 채원 (아빠 서공해 할까봐 안가는 건데?
 아버지 (너무 건강 조심해. (주먹으로 항말을 먹이며) 이 녀석아, 제법 시전 중 가.
 채원 (아버지를 돌아안으며) 건강하세요.
 아버지 (채원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자식, 고집은.....
 채원 (아직은, 여기가 좋아요.

채권, 자기 방으로 가다가 식탁 위에 비워진 와인병과 잔을 바라본다.

마사지 풀러 / 물 (넷)

S# 69

씨가 손님의 등을 마사지하고 있다. 씨나, 피곤한 형편이다.

손님 I want some extra service. (나, 엑스트라 서비스를 원하는데.)

씨나 What extra service? (무슨 서비스를 원하시죠?)

손님 You know, service. That service. (왜, 알면서 그래. 그거 있잖아.)

씨나 What is that service? (그거라니요?)

손님 That. Suck, fuck, something like that. (그거. 음랄한 거 할야.)

씨나 (마사지를 멈추고) We don't do that kind of service. (우린 그런 서비스 하지 않아요.)

손님 What're you talking about? I know you do.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왔는데.)

씨나 Not today. (아쨌, 오늘은 하지 않아요.)

손님 (말하면서) What the fuck is this? Not today? Is this some kind of fucking joke?

How could you treat customer like this? (이게 뭐 하는 거야? 트 하던걸 왜 오늘은 못 하는 거야, 손님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돼?)

씨나 Sir. (손님.)

손님 If customer asks what you do, just do it. You talk too much. (손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램이 그렇게 많아?)

씨나Get out. (나가요.)

손님 What?

씨나 I said, get the fuck out. (나가라고 했어.)

마사지 풀러 / 흥 (넷)

S# 70

손님과 종업원들의 심방이가 벌어지고 있다.

여자 1이 손님을 간신히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고 보낸다.

(시간 경과)

여자 1, 밖에서 들어와 구석에 앉아있는 씨나에게 다가간다.

씨나 ...갔니?

여자 언니, 언니가 이러면 어떡해? 하루 이를 꺾어볼 것도 아니면서.

씨나 ...미안해.

여자 (한숨을 쉬며) 오늘은 먼저 들어가. 내가 이따 대신 마감할게.

씨나 그래..... 그게 넌겠지? (웃으면서 웃는다)

아도모어 공원 / 주차장 (넷)

S# 71

지석이 차에 기대어 누군가를 기다린다.

지석, 시간이 꽤 지체된 듯 시계를 계속 들여다본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하는 지석.

응성 메시지가 흐른다.

소리 (E) 스페니쉬로 앨리스예요. 빠르게 다음에 메시지가 날기세요.

지석 (잠시 생각하다가) Alice, this is Jiseok. I'm waiting at the park.... Call me.

(앨리스, 지석인데,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줘.)

지석, 전화를 끊고 화단 쪽에 섰는데 벨이 울린다.

지석이 받아보면 전속 울퉁한 목소리가 들린다.

남자 (E) Who called this number? (누가 전화했어?)

지석 Is this Alice's number? (저, 앨리스의 전화번호 아닙니까?)

남자 (E) That's right. (맞는데.)

지석 Can I speak to her? (앨리스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자 (E) Why? (왜?)

지석 (머뭇거리며) Well.... (그냥....)

남자 (E)(거친 말투로) Who the fuck are you? Why are you looking for Alice? (너, 뭐야? 누군데 앨리스를 찾아?) (스패니쉬로 마구 소리친다)

지석,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린다.

S# 72

비디오 가게 앞 (밤)

채원의 차가 천천히 비디오 가게 앞을 지나다.

채원, 차를 잠깐 멈추고 유리문 사이로 가게 안쪽을 본다.

카운터 뒤로 앉아있는 지석이 보인다.

채원, 양해이다가 차를 출발시킨다.

S# 73

씨니의 집 / 부엌 (밤)

지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평상시처럼 부엌으로 들어서는 지석, 탁자에 씨니가 앉아 있는걸 보고 멍청하지만 곧 웃는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한다. 씨니의 앞 탁자 위에는 이번 위스키가 반쯤 비워져 있다.

씨니

들어와. 괜찮아.

지석, 개수대 쪽으로 가보지만 평소와 달리 깨끗하다.

지석 누님이 치우셨나봐요. (단처한 표정으로) 제가 해야하는데.....

씨니

단, 미스터 훔더러 그런 거 해들라고 한 적 없는데.

지석, 그냥 개수대에 기대어 서있다.

지석

예, 조금.....

씨니

כן 마셨구나?

씨니 (사이) 하긴 내가 너래 두 척을 가져. 나야 그양 북은 것도 아니고... 다 양가전 북
 지석 (난치한 표정)
 씨니 그래? 그러면... 너, 나랑 연애할 수 있어?
 지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후진 녹이나 여진 좋아하든 간.
 씨니 (비웃듯이) 아니긴 뭘 아냐. 남자들이야 다 북 같은 거 아냐? 인간성 좋은 북이나
 지석 (웃어 보이며) 무슨 명승을, 아니에요. 정말.
 씨니 내 란이 거북리나보지? 아니면, 나이 란은 여자랑 추 마시는 게 좋 그렇지?
 지석 그렇지가...
 씨니 나랑 란하기 싫으니?
 지석, 추기공에 란공이 란아를라였다. 씨니의 란두도 조은씩 거침어진다.
 지석 아무 린 없더니까요.
 씨니 란해봐. 이 누나한테.
 지석 (그저 웃어보이는)
 씨니 누가 지석씨 마음을 아포게 했을까? 법없이도 한 착한 사람을.
 지석 (웃음을 하며) 원연은요, 아니에요.
 씨니 오를 이상하다. 안색이 별골데. 무슨 안 좋은 린 있었어? 원연이라도 양했나?
 지석 아저는 뭐... 란 모르겠어요.
 씨니 미스터 황, 아니, 지석씨. 미국 좋지?
 지석, 추잔을 건네는 씨니의 란복을 본다. 란은 란자국이 성독하게 보인다.
 고 잔을 지석에게 준다)
 지석 제임스, 그렇게 이를 부르면 되잖아. 원마나 편해? 다정해 보이고, (추를 한 번에 들이키
 씨니 단 그래서 영전을 란이 찾아. 미국애를 봐. 갖단 애기권 용선 명은 누언비건 그양 편사,
 지석
 씨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어이, 라든지..... 이봐요, 란은 거 양아.
 지석 그래요 란리 부를 만한 호칭도 그렇고.....
 란 때마더 소를끼치거든.
 씨니 (추를 받으며) 있잖아..... 그 누님 소리 중 안 하면 안될까? 나 미스터 황이 그런 소리
 지석 (씨니에게 잔을 주며) 받으세요, 누님.
 씨니 와..... 란 마시네. 그러다가 란일 끝진다. 친절히 마셔.
 지석, 씨니의 란이 무척게 추를 한 번에 틀이킨다. 인추를 받으며 란공을 쫓그린다.
 지석, 잔을 들고 잠시 양침이다.
 씨니 단 양아. 추에 뭘 타서 마시는 거 이상하더라구. 그렇려면 왜 추를 마셔?
 지석 이런 스트레이트로 마신 적이 없는데.....
 씨니 왜? (사이) 아... 척을 게 없어서?
 지석, 잔을 들고 잠시 양침이다.
 씨니, 지석이 탁자에 와서 자신의 란을 비우고 한잔 가득 채워 지석에게 건넨다.
 씨니 조은이 아닌 것 같으데? (사이) 이리 와. 마신 란에 나랑 더 마시자.

은 여자니까.

지역, 만원이 추전을 비운다.

씨니 (것쫘은 표정으로) 짜중나지? (사이) 농담이야. 기분 나빠하지마.

S# 74

씨니의 만 (만)

(시간 경과)

지역,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씨니를 부축하고 씨니의 앞으로 돌아온다.
씨니를 침대에 돌린 지역, 권은 손을 놓아준다.

씨니 (누운 채 험겨운 목소리로) 나, 취했다. (잠고 있는 지역의 손을 놓지 않는다)

지역, 손을 잠은 상태로 침대 곁에 앉는다. 거동이 깨져 있는 게 보인다.
씨니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에 손을 놓고 이불을 잡아끌어 씨니에게 덮어준다.
이불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씨니의 손을 본다. 양 손목의 권은 상처.
지역, 방을 나가려다가 주위를 한 번 둘러본다. 베개 옆으로 나와있는 권총에 시선을 두
던 지역, 벽에 걸린 사진을 중 여린 여자아이 사진을 유심히 본다.

S# 75

씨니의 진 / 화장실 (만)

편기에 오버이트를 하는 지역, 고물스러워 보인다.

S# 76

채원의 진 (남)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전화를 하고 있다.

채원

좋아, 거린? (사이) 줘 왔다. 가신 길에 꼭 쳐다 오세요. 여기 걱정 말고, (사이) 아이
참, 양만, 무슨 휴대없는 걱정을 그렇게 해? 내가 애야? (사이) 나, 너무 좋아. 혼자 참
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원 성취했어. (사이) 그래요. 걱정마시고 이모한테 안부나 중
전해주세요. 또 전화할게. (사이) 네. (전화 끊는다)

채원, 잠시 멍하게 노트북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가 리모콘을 틀어 TV와 비디오를 켜놓
다.
비디오가 틀레이되면서 어머니가 즐겨보던 드라마의 화면이 나온다.
광동안 TV를 바라보다가 꺼버린다. 베란다 쪽으로 나간다. 크게 운기를 틀며 마셔준다.
몸의 소근근기가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지석과 병은, 교회 건물 뒤를 따라 숨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다.

병은 (신라한 영문로) 나, 회사 그만 둘 거야.

지석 ..왜?

병은 자동차 파는 거 소련도 없는 거 라고..... 아침에 시간 맞춰 나가는 것도 힘들고.

지석 그럼, 아버님 뒤를 이어 신앙의 힘이랑도 같잖아?

병은 나랑이 나쁜 것 없이 하는 복이 복사 되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 하나?

지석 생각보다는 어를스럼네.

병은 코케인 장사를 하면 어떨까?

지석 그런 아무나 하는 거니?

병은 은행 털러?

지석 (바지를 툭툭 털며 영문로) 강개.

병은 야 영문, 나 신라하던 영야.

지석 나중에 보자.

병은 그 여자 만나려 가냐? 옛날 애인.

지석 (물어가며) 아니다.

병은 (일어서서 지석을 따라 가며) 했냐? 그 여자랑?

지석 내가 너냐?

병은 그러니까 채이고 다니지.

지석, 대꾸 없이 걸어간다.

병은 (멍춰 서서) 역시간 애랑 총추려 가냐?

지석, 병은의 질문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교회 건물을 돌아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간다.

소리 (지석의 등뒤에서) 지석야.

지석, 돌아보면 채원이 서있다.

채원 가게로 전화했다니 여기 있을 거라고 해서.....

채원의 작은 정원.

병은 의자에 앉아 있는 채원.

어디선가 아이들의 재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채원, 영문 공을 쫓아 놀고 있어 시선과 함께 들춰보며 맥주를 마신다.

또겨울 햇살이 채원의 정원을 비춘다.

테라스에 바다 쪽을 향해 앉아 있는 지석과 채원.
 휴일인 탓에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채원과 지석,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다.

채원 중수..... 휴일산 란 때 찾았인가 이상한 거 쓰고 왔던 애?개 지은 뭐 하나?

지석 회사 다녀. 상현 전자 대리야. 대학고 다니면서 데모도 영창 하고 스님 된다고 산에도

채원 ...그렇구나. (사이) 참 나, 참이 멜로우조에 있다고 했지?

지석 아저, 여부가 없어서 난의 잔 반 하나 빌려 줘야.

채원 멜로우조..... 나, 여기 와서 한 이년동안은 거기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천국이었어.

지석 거의 주말마다 가서 쉬다시피 한 거 같아. 아무리 돌아다녀도 지루하지 않고, 남자에게

채원 도 여자애들도 하나같이 멋있고, 개성 있어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차 타고 지나가는 것

지석 도 있어. 나 란야, 예전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금방 허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나이 맞

채원 인가?

지석 진희 소식 모르지?

채원 진희.....?

지석 음악하는 애 있었잖아. 스케치 모임에 나오던

채원 으응. 란야. 란론 이쁘고 피아노도 전공이고.

지석 죽었어. 2년 전에.

채원 (놀란 듯이)어떻게?

지석 자했잖아. 유서도 없었고... 란들이 많았어, 그것밖에.

채원 그랬구나.....

채원, 잠시 란을 읽고 바다 쪽을 본다. 란매기 수선 마리가 하늘을 배회하고 있다.

채원 나이를 먹으니까 좋은 란보다는 안 좋은 란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편안하면서

지석 불 소식은 안 들려고 하는데.

지석 내가..... 괜한 애랑 했나?

채원 아냐. 어차피 연재가는 란게 될 란이었을텐데.

지석 (화제를 바꾸려는 듯) 너는 어떤니? 참 지내는 거지?

채원 (웃어 보이며) 그럼. 나야 늘 씩씩하지. 너도 란잖아.

지석 그래..... 너 정말 어디 가든 참 쉬 거 같아.

채원 (중요하듯이) 나 란이 괜찮은 여자를 왜 안 데려 란까? 안 그러니?

지석 애인 있다면서.

채원 (약간 표정이 흔들리며) 으응..... 근데, 아직은 학교도 그렇고 해서 별다른 계획이 없으

지석 니까.

지석 그 사람은..... 참 해주지? 너한테.

채원 (자신있게) 그럼. 귀찮을 정도로.

채원,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 바다 쪽을 응시한다.
 탁자 위에 있는 선글라스를 들어 눈을 가리듯이 쓴다.

채원이 운전하고 그 옆에 지석이 앉아 있다.
 창 밖으로 시원한 해변의 풍경이 펼쳐진다.
 대화가 없는 게 어색하게 느껴진 지석, 라디오를 틀어 주파수를 한인방송으로 맞춘다.

지석 (채원을 보며) 괜찮지?
 채원 (고개를 끄덕이고) 너, 미국 온 지 얼마 안된 애가 이런 방송만 들으면 되겠니?
 지석 (그냥, 다들 이거 틀어 놓고 있으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야.

채원, 지석을 한 번 힐끔 보고

채원 (잠, 지난번 선물 고마웠어.

지석 (물...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이) 사원 크리스마스 때 줄려고 했는데 네가 바빠면 만나지 못할 거 같았거든.

채원 (넌 포기보다 자살한 데가 있어. 그런데 왜 여자를 못 사귀는 거니? 여자한테 참해줄 것 같은데.

지석 (그렇게 보여?
 채원 (피식 웃으며) 취향은 좀 바뀌어줬더라. 네가 조건, 내 나이보다 첫사랑들이 주로 쓰는 화장품이거든.

지석 (인양한 듯이) 그, 그래? 미안해. 몰랐어. 난.....
 채원 (웃어 보이며) 괜찮아. 사원 난 정말 강동했어. 생전 처음으로 너한테 선물 받고.

지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차량 밖의 풍경을 본다.

라소리 (E) (라디오) '사랑을 찾습니다' 코너의 정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방송의 이선자씨께서 여고 동창생 사동순씨의 연락 기다리시다가 구요, 그리고, 라소리가스의 장민희씨가... 장민숙씨의 소재를 아시고 싶다고 하였고, 산마리노의 고창순씨는.....
 지석, 라소리가 라디오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

S# 81

마사지 풀러 안 (박)

영영이 문단 씨나의 가게, 씨나가 씨타의 자물쇠를 잠그고 있다.
 그녀의 옆에 서있는 특이한 남자. 라디오의 후연으로 영영은 창문 밖을 훑어본다.

S# 82

리커 상점 안 (박)

주인 아저씨, 역시 인자한 형제로서 문단 씨나를 맞는다.

주인 (문단 씨나?)
 씨나 (영영도 터키 리터 세팅 하구요, 홍세 쿠에르보 네 베틀, 버드 라이트 두 베틀, 그리고 창고 쪽으로 가버) 피라피 하러 가시죠?
 주인

잠옷 채원의 채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어머니가 보던 한국방송의 드라마를 들 채, 시선은 TV를 향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것
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TV를 껐다가 다시 켜고, 또 다시 끄고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지석, 고개를 끄덕인다. 씨니, 가볍게 웃어 보이고 양을 나간다.

씨니
정말이지?

지석
...괜찮아요. 별일 아닌데요, 뭘.

씨니
(공 잃고 나가다가) 저기 봐. 지난번엔 미안했어.

지석
가시게요?

씨니
그냥, 오랜만에 종각 사는 양 구경 중 하려고 온 거야. (일어서며) 란게, 구경 왔잖아.

지석
.....

씨니
이상해. 아주 추백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놓으면 해도 유용해하거든?

지석
(아색하게 웃으며)

씨니
왜, 내가 떨칠까봐?

지석
(바닥에 앉으며) 그래요.....

씨니
아냐, 아냐. 그냥 누워 있어.

지석
(침대에 서 나오며) 그럼요, 앉으세요.

씨니
(두리번거리며) 아래 위 참면서 이 방은 처음 와보네. (책상 앞으로 가며) 앉어도 돼?

지석
흥고 장식이 없이 심플한 방. 작은 책장에 잔다한 책들만 꽂혀있다.

씨니, 방안을 호기심 있게 둘러본다.

지석
(스탠드 볼을 켜며) 아니에요. 틀어주세요.

씨니
미안, 내가 깨웠나보지?

씨니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들어온다.

지석
(몸을 일으키며) 네.

지석
느긋 소리.

지석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생각이 많은 듯 눈을 감지 못한다.

주인 아저씨, 크게 웃자 씨니도 따라서 웃는다.

씨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주인
가는 것도 걱정이예요. 너무 늦어서 비행기타고 가다 죽는 거 아닌지 몰라.

씨니
그래요? 한 하셨네요.

주인
네, 많이 밝아졌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 가기로 했거든.

씨니
(물건을 고르며) 예, 그냥 뭐 가까운 친구들하구... 사모님은 중 관했으세요?

가게 안 주차장에 차 두 대가 부딪혀서 차가 기울었다. 경찰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비디오파견 (남)

S# 86

여자 1, 뺑뺑이 사고는 표정이 되고 다들 여자를 도와 영웅을 칭찬하러 아들이 왔어. 짜니, 소파에 앉아서 책을 펴고 있다.

짜니 너네나 해. 문밖으로 가는 것도 지켜봐 주면 좋겠다. 그런 걸 하나?

여자 1 아이 참, 재미있잖아. 영웅 칭찬 사람이 아니라면.

짜니 웃기지 좀 마라.

여자 1 언니, 왜 그래?

짜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다시 소파로 돌아간다.

여자 3 Full service.

여자 2 Free. (웃음)

자 영으로 가기로 했다.

여자 1 언니네 집에 사는 남자 영웅이야. 영웅 피터 클린 후에 오를 사다리에 걸린 사람이 그

짜니 단 뭐하면 되는 건데? 자선물사라냐?

우 - 하며 환호하는 여자를.

짜니가 선택한 종이 X표에 걸린다.

사다리를 시작하는 여자 1. 모두 시선이 사다리에 집중이 된다.

여자 1 일단 한번 해봐.

짜니 ?

여자 1 언니 생일 기념 자선 봉사!

짜니 (소파에서 일어나 여자를 쪽으로 가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걸리면 뭐하는 건데?

여자 1 이리 와. 언니가 빠지면 되잖아?

짜니 (책들 놓으며) 왜?

여자 1 언니!

여자 3 (짜니를 가리키며) What about her? (우리끼리만 해?)

여자 1 Sure. Only one. (물론이지. 한 번)

여자 2 One chance? (한 번의 기회야?)

she is the winner. Got it? (여기 X표에 걸리는 사람이 양철 되는거야, 모두 알겠지?)

여자 1 (사다리 그림을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주며) 자, Anybody who reaches this x mark,

한국인인 여자 1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짜니는 관심이 없는 듯 구석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고 있다.

손님이 없는 듯 말하는 여자들이 한가하게 모여 사다리를 타기를 하고 있다.

라디오에서 가요가 흘러나오고,

마사지 풀러 / 풀 (남)

S# 85

자, 모두 한국사람이다. 한 쪽은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까지 가세하여 상대편 남자를 뺀
아 부친다. 주위에 백인, 흑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싸움을 구경하고 있다. 지석
도 가게 문을 열고 가게를 내림어 그 광경을 본다.

남자 1 야, 너 뭘 먹었어, 응? 여기가 미국이라고 이래 뭐도 없는 거냐, 이 자식이야?
여자 (남자 1을 가리며) 보다보다 참람 볼 수가 없어, 남의 나라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남자 2 나이? 먹은 만큼 먹었다, 왜? 댁 얼마나 처먹어서 만큼 지꺼리야?
남자 1 이 새끼가..... 너 언제 미국 왔냐? (남자 2의 면학을 잡고 치려한다)
남자 2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남자 2, 남자 1을 발로 차며 반격하고 여자는 남자 2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매달린다.
구경하던 흑인 여자 한 명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말리려한다.
가게 쪽에서 구경하던 지석, 전화벨 소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싸우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크게 들린다.

지석 헬로우. (사이) 응, (사이) 뭐? 오늘? (사이) 큰뵘..... (사이) 갑자기 무슨 미임? (사이)
... 너무 어린 애를 아냐? (사이) 야, 범공야, 다른 전화 왔거든, 이때 다시 해. (동화
대기 소위치를 누른다) 헬로우. (사이) 뭘이야? (사이) 거긴 뭘 시야? (사이) 응, (사이)
여기를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야? (사이) 응, 알았어, 오케이. (사이) 뭘, 영마는 건강하
셔? (사이) 응, 그래,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줘. (전화 끊는다)

지석이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 채원이 가게로 들어온다.
채원 (바라쪽을 가리키며) 무슨 난리야, 이게?

지석, 웃으면서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채원에게 묻는다.

S# 87 타이즈 버거 (저녁)

지석과 채원이 카운터 앞에 서서 햄버거를 먹고 있다.

채원 여기 자주 오니?
지석 (햄버거를 입에 한 입 물고) 가끔, 왜, 맛이 별로야?
채원 아냐, 나도 몇 번 외봤어, 좋아해.
지석 (맛있게 햄버거를 먹으며)
채원 얼마 전인가..... 너 만나기 전에 여기에서 너랑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았거든.
카운터 안에서 주방장이 지석을 부른다.

주방장 Hey!

지석이 그쪽을 바라보면

주방장 Girl friend? (애인인가 보죠?)
지석 (머뭇거리며) No, just friend.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서로의 양구정중 분위기를 옮겨 주는 듯한 한인 카페.
잔디를 대부분이 젊은 한국 사람들이고 음악도 최신 한국가요가 흘러나온다..
지식, 영공과 두 명의 여자와 함께 앉아 축을 마시고 있다.
영공이 영석의 여자들과 이야기하지만 썩렁한 표정의 지석이 분위기를 깨는 듯 하다.

채원, 장난스럽게 지석의 팔에 자신의 팔을 얹고 다정한 포즈를 한다.
지석, 채원의 장난을 보며 웃지만 원지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다.

주방장 Just friend? Too bad, she is very beautiful. (그냥 친구? 안 됐네요. 상당히 미인인데)
채원 (잘할거라고 웃으며 주방장에게) Really? Thank you. (정말이예요? 고마워요.)
주방장 (채원에게) You don't like him? (저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거요?)
채원 I do, but he refuses me. Too sad. (난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난 거부해요. 슬픈 영
이예요.)

지석 (지석을 바라보며)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채원 (계속 웃으며) 좋아. 여자가 예쁘다는 소리 듣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나?
지석 외국 사람이 보는 동양여자를 외모 기준이 우리랑은 다를지도 모르지.
채원 (지석을 쳐다보며) 난, 그래서 내가 별로 라는 애를 하고 싶은 거니?
지석 (웃으며) 농담이야, 농담.
채원 야... 황 지석, 많이 봤다. 난 막 놀리구 말야.
지석 (변명하듯) 놀리기는.....
채원 잊네 내가 한 마디 하면 뭘 뻘뻘 놀리며 응황해 하구 그랬는데.....
지석 (고개를 가웃 하며) 그랬었다...

채원 너, 내가 니 애인이면 어떤 것 같애?
지석 (느닷없는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글썪.
채원 지금 난 보면 느낌이 어떠니?
지석?
채원 축하의 옛날에 내가 난 좋아했잖아.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어떠냐구.
지석 무슨 애정문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채원 나, 심리학 전공이잖아. 상담이 내 특기거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지석 뭐, 별로.....
채원 에이, 재미없다. (지석을 보며) 그냥 한 번 물어본 거야. 신랄하게 들을 거 없어.
지석 (잠시 생각한 후) 좋아해.
채원 (간직스런 지석의 말에)?
지석 (그렇어. 지금까지도. (사이) 앞으로도 그럴 거고.

S# 90

카페 주차장 (밤)

영공, 지식의 노치를 본다.

(그래, 그러자. 요즘 스파크가 참나간다는데.)

여자 2 Yeah, let's go. I heard Sparks is good lately.

여자 1 오빠, 여기 너무 재미없어. 우리 짝꿍 가자, 응?

여자를, 영공의 차에 타고 지식은 차 옆에 영거추를 서있다.

(차에 타지 않고 차 문을 닫으며) 아, 그러지랑고 같이 가자.

단, 나이트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영공 아이, 담당하 녹. (깃속함론) 재네들은 확실하다니까. 그냥 가서 분위기만 맞춰주고 나와

서 롱롱이 쫓아지면 돼.

클베, 아무를 별문라구.

영공 거지랑은 새끼, 더럽게 윙기네. 뭐, 다른 권수라도 있는 거야?

지식 아니라니까. 그냥 집에 갈래.

영공 불구나..... 혹시 너 얹혀 사는 친추인 여자랑 짝꿍 된 거 아냐?

지식 뭐?

영공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그렇지? 그 여자 색 장 쓰겠는데.

지식 (아이었다는 듯이)

영공 왜, 그 여자가 레드비트비 대신 한 번 탕라고 하든?

지식 (짜증스런 표정으로) 친구로서 부탁인데, 그 여자 얘기 중 함부로 하지 마라. 나한테

영공 데 더러움 소리 들기 싫으면.....

영공 (움짤하며)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관두자. (차에 타며) 이런 무슨 녹음도 못하고 망야.....

영공, 시동을 켜고 차를 출발시킨다.

여자 1 (차창으로 고개 내밀며 지식에게) 오빠, 안돼.

차가 떠나고 그 자리에 지식만 남는다.

S# 91

씨의 밤 (밤)

씨니, 밤 안 화장대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다.

씨니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얘길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채원 (E) 두려우세요?

씨니 그렇다..... 클베요. 그러지도 모르겠네요.

채원 (E)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씨니 ...물라요. 내가... 뭐 두려워하는지.

채원 (E) 상처받는 것이 싫으신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씨니 ... (축잔을 들다가 화장대에 거울을 올려 자신의 모습을 본다)

S# 92

반죽국 / 소풍디오 안 (같은 시각)

채원 그 남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의 반응이 차가운 거라는 본인의 확실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한번의 상처를 안게 될 것이구요. 그런 상
 황을 아예 피해보려고 하고..... 맞아요?

채원

(E) 네..... 아마도.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이 생김
 때마다 (사이) 참 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가 그
 렇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피하고,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면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남는 것이 뭐겠어요. 타인으로부터의 상처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채원

(E)네. 그래요. 그런데,

네.
 (E) 물론 내가 받는 상처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원

왜요?

(E) 그 사람, 약하고 여린 사람이예요. 어쩌면 상황 때문에 나를 거절할 수 없을지도 몰
 라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껏 좋아해 왔던 모든
 상처를 함께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런..... 정말 서로에게 공평한 형이 될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계속 변화 없이 그 결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채원

(E)

채원 두 골은 자주 만나시는 편인가요?

S# 93

수퍼 마린, 랑프스 (남)

채원 채원과 지석이 함께 사진을 보고 있다.
 채원이 물건을 묻러 오면, 지석은 자신이 끄는 카트에 받는다.

채원

아는 사람을 중 연락했어?

지석 친구라고는 범용이라는 애 밖에 없고.....

채원

여자친구 있잖아. 비디오 가게에서 우연히 만났다면.

지석

개는 아직.....

채원

별일 없으면 오라고 해. 뭐 곤란한 거 있어?

지석

아니요.

채원 채원, 지석의 표정을 살핀다.

S# 94

채원의 집 안 (남)

채원 채원 주 변종 편이 붙어 있는 체로키 지프 차가 집 앞에 멈춰 선다.
 채원이 내리고 환관 쪽으로 다가와 초인종을 누른다.

파티 준비가 한창인 집 안.
 홀가분 음악 소리와 함께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씨나와 마사지 풀러의 여자들은 부엌
 에서 음식을 준비중이고, 지석은 정원에서 바비큐 숯불을 지피고 있다.
 정원으로 넘어가 여자들이 수영을 데리고 들어온다. 지석이 그들을 맞으며 잔 위의 정원이
 곧 안내한다. 잠시 후 채원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석, 채원을 씨나에게 데려가 소개하고, 수 사람, 서로 인사한다. 씨나가 채원을 관상
 있게 물어본다. 씨나와 아는 몇 년 전 영국이 모란하게 돌아와 씨나와 인사한다.

랜드, 차를 들고 가버린다. 남자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자신의 차로 간다.

랜드 (피식 웃으며) 씨나한테나 물어봐요.
 거든. 괜찮은 아가씨를 알아요. 원하면 백마도 붙여줄 수 있고.

남자 연제 베가스에 어떤 연락해요. (말을 건네주며) 다들 타공에서 한국 축전 하나 하고 있
 란게요.

남자
 데.....

랜드 그런 나도 몰라요. 직접 물어보세요. 전에 란이 슈던 올메이트 대신 물어와 있는 모양인
 남자 아무를 좋아요. 그런데, 저 아래층에 산다는 여자와는 무슨 관계로 보입니까?
 있어요.

랜드 ... 씨나는 괜찮은 여자죠. 하지만 나 같은 동하고는 상대 안 해요. 씨나가 좋은 사람이
 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게 해줄려는 겁니다. 당신 맘대로 당신이 씨나의 남편이고, 그 여
 혼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찾고 있었다면, 씨나도 당신을 기다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남자 아니에요?
 랜드 (피식 웃으며) 그렇게 보여요?

남자 당신..... 민숙이, 아니 씨나와 단순한 일 관계의 사이가 아니었던 모양인데.....
 랜드 그냥, 음이었어요. 누가 씨나를 그렇게 찾는지, 왜 찾는지.

남자 그러면?
 랜드 사례금 때문에 당신한테 연락한 건 아니에요.

남자 (약하게 쳐다보며) 왜요?
 랜드 (돈을 톡톡 치며 보다가) 됐어요. 안 받겠어요.

남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자, 사례금.
 it's up to you. (그런 그 쪽 마음대로 하세요.)

랜드 난 할려줄 거 알렸었으니 할 령 다 받습니다. 기다리시던 지, 나중에 다시 오시던 지,
 남자 (인상을 쓰며) 에이, 원리서 쫓겨가게 된걸요데.....

랜드 뭐, 어디 여행이라도 간 모양이죠.
 남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계는 안혀 있고 천에도 없고.

남자가 랜디에게 다가온다.
 그가 내린 차의 앞에 서있는 다른 차 안에는 랜디가 앉아 담배를 피고 있다.

남자가 몇 번 더 주인종을 누르다가 유리창 쪽으로 다가와 창안을 들여다본다.
 씨나도, 지석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 안에서는 응답이 없다.

(시간 경과)

간 탁자에 모여 앉은 사람들, 음식과 술을 하며 즐겁게 얘기를 나눈다.

지석은 정원 한쪽의 바베큐 그릴 앞에서 람비를 듣고 있다. 채원이 지석의 곁으로 온다.

채원 나도 좀 먹어. 내가 할테니까.

지석 여기서 수시로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서 먹어, 근방 그쪽으로 갈게.

채원 다 모르는 사람이라서 좀 어색해.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알았으면 안 오는건데.

지석 애인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야?

채원 응..... 람자기 힘이 생겼나봐.

지석 그래? 어떤 사람이냐 묻고했는데.

누 사람을 지켜보던 씨니가 다가온다.

씨니 자, 이제 내가 람을 데니까 누 사람은 가서 술 좀 마셔. (동을 띠인다)

(시간 경과)

어느 정도 식사를 끝내고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자 1 그럴 몰라요?

영웅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여자 2 그게 요즘 인기 최고야. TV 드라마보다 재밌어.

남자 1 그게 뭐라구?

여자 1 러브 도쿄, 헬렌 정 의 러브 도쿄.

채원, 단강한 표정이 되고.

지석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자 2 헬렌이란 여자가 전화 상영을 하는 건데, 주로 남녀 애정문제나 특히 섹스문제 관련

적나라하게 다룬다구.

여자 3 그래요? 재밌겠다. 그거, 몇 시에 해?

남자 2 나 참, 여자들이란.....

여자 1 근데 그 헬렌이란 여자, 중 옷겨, 세상 일은 혼자 다 아는 척 해. 지가 양면 양머나 안다

여자 2 심리학 박사래잖아.

여자 1 씨람, 심리학 박사 My ass (내 똥꼬)다. 지가 나보다 더 알아 알아? 나보다 더 지랄 더

많이 해봤잖고.

남자 1 그런 그렇다. 나 맘이 왔다.

씨니 (채원을 보며) 그 표정 알아요?

채원 큰씨요, 전.....

여자 1 안니. 지 아가씨는 누리랑 들리잖아. 그런 건 누리랑이 문제잖은 사람한테만 해당

는 거라구.

(시간 경과)
 모두 거실에 모여 AV 시스템의 노래방 기계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영공이 뽕짝 노래를 원편하게 부르자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남자 2 목소리 좋네! 영공. 영공.

여자 1 지식씨, 여자 친구랑 듀엣으로 한 번 해봐. 응?

지식, 쭈뼛거리며 나가지 않는다.

여자 1 왜 이래, 애인사이에. 멋지게 한 번 해봐.
 채원 (정색을 하며) 애인 아니에요.

남자 2 에이 쉬거워라.

여자 1 그래요? 어머 좋겠다. 내가 지식씨 가져도 되겠네.

지식 (멋쩍어서 앞으로 나가며) 제가 하나 할게요.

지식이 마이크를 건네 받아 노래를 시작한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씨가 채원에게 이야기한다.

씨나 아직 학교 다니다구요?

채원 네.

씨나 왜, 시간도 안 가구.....

채원 (웃으며) 버려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씨나 우리 지식씨는 어때?

채원 예? (반색하며) 저런 그냥 친구.....

씨나 쯤 중해보지. 례이 쯤 어울리는데.

채원 큰썩, 저희는.....

씨나 지식씨는 아가씨 좋아하는 것 같아. 단 썩 보면 알거든.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시간 경과)

파티가 점점이 되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

한 쪽에선 지식이 영공과 그가 데려온 여자들에게 이끌려 나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씨나와 여자 1, 채원 그리고 남자 1이 춤을 돌려 마시고 있다. 남자 2는 춤에 취해 머무
 에 힘드려 자고 있다.

여자 1 그래서 사다리 게임을 해가지고, 오늘 지식 씨를 위해서 자선봉사 하기로 했던 람야. 그
 람데 씨나 영공이 영공이 오라보아야. 그럴 람 뭐하러 했어? 람만 새게 람야. 씨
 람.....

씨나 너 취했어? 그만 중해.

여자 1 언니, 언니가 재짜로면 머 마음 있는 거 아냐?

남자 1 (여자 1에게) 야, 그런 거 나한테도 중해줘봐라. 이 기침야야.

여자 1 난 특었잖아. (지식을 가리키며) 재는 아저씨 친구.

씨나 (화난 듯이 여자 1을 노려본다).....

채원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지석, 계속 춤을 추고 여자 하나가 그의 몸에 자기 몸을 붙이고 아하게 몸을 흔들다.

여자 1 아이, 언니 왜 그래? 혼자 먼저 말고 가끔 좀 나눠 먹자. 치사하게.

씨니 (공은 원문로) 여기서 꼭 터를 내야 되겠나?

여자 1 언니 두 참,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그런 여자를 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단구
그래, 씨새스럼개? (채원을 보며) 아이구, 있었구나. 췌피해라. (채원에게) 미안해. 아가
씨, 우리 하는 힘이 좀 그렇거든. 이해해 줘.

씨니, 참다못해 일어나 정원으로 나가버린다.

채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지석을 본다. 지석, 춤을 추다가 채원과 눈을 마주치자 못어 보
인다.

채원, 원없이 일어나서 지석의 옆을 지나 원관공을 옆고 밖으로 나간다.
지석, 몸을 붙이고 춤을 추던 여자를 원어내고 채원을 따라 나간다.

지석 가는 거야?

채원이 자신의 차 쪽으로 돌아간다. 그 뒤를 지석이 따라간다.

채원이 원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선다.
지석, 채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표정을 살핀다.

지석 누가 너한테 원수라도 했어?

채원 ...아니. 원수는, 내가 했어.

(웃으면서) 원마 너가 그럴 힘이 있었어? 뭐가 기쁜 상했는지 얘기를...

채원 내가 여기 온 게 원수인 것 같아. (다시 원어간다)

지석 (표정이 굳어지며) ...채원아.

지석 (따라가서 채원의 몸을 잡으며) 그러지 말고...

채원 (몸을 멈추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석 음?

채원 이렇게 이 먼 나라까지 왔나?

지석 무슨 얘길 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채원 나도 모르겠어. (아이) 아냐. 너한테 화난 거 아냐. 내가 너한테 이런 원수 없는데...

지석 미안해, 신경 쓰지마.

지석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채원 너, 저 씨나라는 여자랑 한 집에 사는 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

지석 ...그런 상관없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건, 그리고, 씨니는 좋은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채원 정말 편하구나. 그래, 너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석 ...

채원 항상 너의 세계는 따로 있는 거지? 남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과 원' 라는 식으

지석 음 원야. (아이) 그렇게 강해? 그렇게 이해시키지 않나?

지석 그렇지 않아.

채원 그런 이해식으로 나도 좀 이해시켜봐. 응?

지석
 채원 아냐,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내가 원데, 너한테 이런 자격도 없으면서, 니가
 채원 뭐 하든, 누구와 하든, 내가 응원할 힘이 아니잖아?
 지석 무슨 힘이든, 하고 싶은대로 해. 괜찮아.

채원, 돌아서서 돌아간다.

지석 채원아.

채원, 대꾸없이 차에 올라타고 떠난다.

유패스러공 표정의 지석.

뒤 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 병운의 차가 지석의 옆에 와 섰다.

병운 (고개를 내밀고) Hey man, get in the fucking car..... (야, 타라.)

병운의 차에 두 여자가 뒤에 앉아 있다.

S# 99

씨니의 집 / 거실 (밤)

파티가 끝나고 난 거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 같아 어지럽다.
 몇 사람이 여기 저기 털부러져 자고 있다.
 씨니, 지천 모습으로 빈 병들을 주워 버림에 담고 있다.

주인종이 울린다.

씨니, 몸을 열자 낮에 란디와 왔었던 씨니의 전 용거방이다.

남자 (웃는 얼굴로) 파티 다 끝났어?

씨니 (놀라며).....

남자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씨니어떻게 왔어?

남자 (안으로 돌아서며) 어떻게? (주변을 둘러본다) 다 아는 수가 있지. 미국 밤, 텅다고 해도
 영전을 있는 데는 뻔하거든.

S# 100

바닷가 도로변 (밤)

지석과 여자 한 명이 뒷자리에 앉아있다. 지석의 시선으로 다른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영
 리 할아가는 병운의 모습이 보인다. 지석 옆의 여자, 음배를 피며 라디오의 음악에 맞춰
 춤을 거리고 있다. 여자, 지석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피고 있던 음배를 지석의
 옆에 갖다 던진다.

S# 101

씨니의 방 (밤)

남자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제법 해놓고 사는데.....?
 씨니 (화장대에 기대 선 채)

씨니
 지석

 씨니
 지석 (피식 웃으며) 그럴거요.
 씨니
 지석
 씨니
 지석 (잠시 바라보다가 넉넉하게) 너, 여기 머슴 처녀 들어왔니?
 씨니
 지석 (계속 그릇을 뒤으며) 요거만 마저 치우구요.
 씨니
 지석 (목이 권 듯한 소리) 그냥 놔둬.

씨니
 지석

 씨니
 지석 (계속 그릇을 뒤으며) 요거만 마저 치우구요.
 씨니
 지석 (목이 권 듯한 소리) 그냥 놔둬.

S# 104 씨니의 잔 / 부엌 (밤)

씨니, 권총을 물고리며 보다가 베개가 베개 함으로 넘어 눕는다.
 베개 함으로 권총이 빠져 나와 있다.
 창대에 누운 채 생각에 잠겨 있는 씨니, 몸을 뒤척인다.

S# 103 씨니의 방 (밤)

창좌석에 무표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여자, 그 옆의 지석은 창 밖을 보고 있다.
 여자, 다시 담배를 붙여 지석의 입에 갖다 준다.
 지석,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받아 핀다.
 여자, 지석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지석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전여넣는다.
 지석, 아무 반응이 없다. 다시 한동안 지석을 바라보던 여자, 지퍼에서 손을 빼고 돌아앉아 창 밖을 본다. 지석, 자신이 물고있던 담배를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담배가 담배를 받아 피운다.

S# 102 바닷가 도로변 (밤)

씨니
 지석
 씨니
 지석 (안색을 바꾸며) 그 돈, 너 갖고 뭐라고 벌이는 거 아냐, 씨함.
 씨니
 지석 (사용하듯이) 양산은 돈 많잖아. 굳이 나한테.....
 씨니
 지석 (일어서서 창가로 가며) 그렇지 뭐. 반를 건 받아야 되니까.
 씨니
 지석 (돈 뭍에 묻 거야?)
 씨니
 지석 (공 리에 그냥 여기 놓려 앓을까? 창대에 누워본다)
 씨니
 지석 (잠시 생각하다가) 시간이 좀 췌.
 씨니
 지석 (잠시 생각하다가) 시간 좀 췌.
 씨니
 지석 (잠시 생각하다가) 시간이 좀 췌.
 씨니
 지석 (잠시 생각하다가) 시간이 좀 췌.

지석, 무의식중에 들고있던 점시를 부러뜨린다. 손끝에서 피가 흘러 수도 뿜에 씻겨 내려간다. 씨니,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간다. 지석, 표정 없이 서있다.

S# 105 재원의 진 (새벽)

재원, 거실 소파에 TV를 틀어놓고 앉아있다.
바닥에는 엄마가 보던 비디오 테이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베란다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온다.

S# 106 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 지석의 차 안 (새벽)

지석의 차가 해변을 달린다.
지석, 라디오를 틀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소리 (E)(D) 라바의 영문 대성식당 계운 내이션 와이드 쇼 '우리는 하나' 들고 계신 지금 시 각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소식 알아보죠. 김 지훈 올신원,
소리 (E) 네, 이곳 뉴욕 한인회에서 다음 달 15일 만전 원 인종 화합과 국민 단합을 도모하는 취지로 9.11 테러가 있었던 세계 무역 센터 자리의 추모 관중에서....

S# 107 씨니의 진 / 정원 (낮)

씨니, 썬텐 의자에 편한 자세로 기대어 앉아 햇볕을 쬐고 있다.
휴대폰 벨이 울린다.

씨니 (전화 받으며) 응. (사이) 갑자기 종 일이 생겼어. (사이)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사이) 그래. (사이) 응,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게. 애들한테 연락 중 해줘. (전화 끊는다)

씨니, 전화를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어다 미안함을 누른다.

씨니 여행사조? (사이) 캐나다 밴쿠버, 원웨이(편도)로.
(사이) 더 빠른 거 없어요? 근해서 그런디.

씨니의 시선으로 채원이 정원 쪽으로 오는 것이 보인다.

S# 108 비디오 가게 안 (낮)

주인 그레..... 서운하다, 아, 잔해주지도 못했는데.
지석 아니에요. 덕분에 참 있었어요. 많이 배웠구.
주인 나한테 배롱 게 뭐 있냐, 카드 치는 거 말고,
지석 또 불러줄게요.

썬니와 지석에 얽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S# 115

썬니의 전 / 복행 (밤)

썬니 부서에 얽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채원의 모습.
PD가 옆에서 노트북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S# 114

썬니의 전 / 스튜디오편 (밤)

썬니, 생각에 잠긴 채 공전을 하고 있다.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 패트를 차가 썬니를 요란하게 쫓아간다.

S# 113

거리 / 썬니의 차 안 (밤)

썬니, 가게공에 'CLOSED' 간판을 걸어두고 나와 공을 잡고는 길가에 세워진 차포간
다. 차 공을 열다가 리퀘 샵을 쪽을 바라본다.
썬니를 통해 샵 주인 아저씨와 부인이 카운터에서 정리는 모습이 보인다.
서로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는 다정한 모습이다.
썬니, 잠시 그들의 모습을 보다가 차에 올라탄다.
썬니의 차가 떠나고 나면, 리퀘 샵도 공을 일으키는 듯 간판 불과 썬니들이 하나씩 꺼
다간다.

S# 112

마사지 풀러 앞 (밤)

썬니가 공을 지불하고 비행기 표를 받고 있다.
한국인들이 근무하는 여행사 안.

S# 111

여행사 (낮)

여행사에서 나오는 썬니. 바쁜 걸음으로 차에 올라탄다.

S# 110

거리 / 한미 은행 앞 (낮)

썬니, 채원의 얼굴을 바라본다.

채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썬니: 어떤?
채원: 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가가와 주린 기다려야하는 그런 관계 랑이예요.
썬니: (잠시 생각하다가) 음, 썬니, 썬니가 안 나는데,
채원: 지금 좋아하는 분이 있으세요?

지석: 어머니..... 아직 마이애미에 계시니?
 지석: (충분 마시며) 응.
 지석: 오래 계속 모양이네.
 지석: 아마 꽤 오래, 돌아오시지 않을 거야.
 지석: (잠시 채원의 표정을 보다가) 이모가 같이 계시다니까 아무래도...
 지석: (화제를 바꾸듯이) 밖에 추 마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애. 생각보다 괜찮은데? 가슴이 찜찜
 지석: 큰한 게. (미소 띠며 지석을 보고) 내 얼음 볼 뻔했나?
 지석: 조금, 그런대로 괜찮아.
 지석: (지석의 잔을 들어 건네며) 너무 마셔, 나 혼자 마시는 것 같잖아.
 지석: 난 공전해야 되니까.....
 지석: 야, 훗 지석, 양전 그만 하고. (잠시 지석을 바라보다가) 아직도 화 안 풀었어? 지난번에

S# 118 해변 카페, 피아 뷰 (낮)

지석: 헬로우.
 지석: (E) 나야.
 지석: 응, 그래. 참 있었어?
 지석: (E) 나, 오늘 출한 잔 사줄수 있어?

지석: 전화벨이 울린다.
 지석: 전화를 받는다.

S# 117 씨나의 집 / 부엌 (낮)

지석: 채원이 책상 앞에 노트북을 마주하고 앉아 있다.
 지석: 노트북 옆에 그녀가 워던 편지가 펼쳐 있다. 봉투에 '마이애미. 영마' 라고 써있다.
 지석: 담배를 피워 무슨 채원, 어두운 표정이다.
 지석: 창 밖의 하늘이 비가 올 듯 잔뜩 짙어졌다.

S# 116 채원의 집 (아침)

지석: 영치는 썬셋 부동산 미스터 김한테 전화주면 돼. 우편으로 해도 되고.
 지석: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
 지석: 큰세, 상환 박사 빨리.
 지석:
 지석: 미안해.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돼서.
 지석: 제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지석: 그런 소리 중 하지마. 어차피 지석씨가 시애를 데 가지 않아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
 지석: 있었을 거야.

S# 119 **씨의 집 앞 (밖)**
 위의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 싫었어. 그래서 단 그러자
 람치고는 다짐했어. 나 자신한테 말야. 절대로 약해지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이기적으
 로 생각하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아만거야. 전혀 아니더라고. 부
 를 앞에서 특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같은 삶은 참지 않으려고 했는
 데. (사이) 얼마 전에 난, 이곳에 와서 너를 포함한, 나의 모든 기역을 지워보려고 안간
 힘을 썼던 수많은 날들이 아무 소용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화가 났던거야.
 내 자신한테.....
 다시.... 다시 말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래 전에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

 지적 아직 늦지 않았다면.
 채원

S# 120 **한미 은행 옆 주차장 (같은 시각)**
 씨나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링가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
 기사가 내려 트렁크를 열고 씨나의 가방을 받아 줘는다.

S# 121 **씨의 집 (저녁 무렵)**
 씨나 (차에 타며) Airport.

S# 122 **씨의 집**
 채원
 지적
 채원 나 중 안아줄 수 있어?
 채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S# 122 **씨의 집**
 채원 나 중 안아줄 수 있어?
 지적
 채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채원 나 중 안아줄 수 있어?
 지적
 채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S# 122 **씨의 집**
 채원 나 중 안아줄 수 있어?
 지적
 채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S# 122 **씨의 집**
 채원 나 중 안아줄 수 있어?
 지적
 채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S# 122 **씨의 집**
 채원 나 중 안아줄 수 있어?
 지적
 채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채원은 계속 고통스러운 표정이다. 한동안 그 상태로 움직이다가 지석이 움직임을 멈춘다. 채원, 고개를 돌린다. 눈물이 떨어져 창대를 적신다. 한동안 채원을 바라보던 지석, 채원에게서 떨어져 앉는다.

채원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미안. (태연하려 애쓰며) 그런 소리하지마.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사이)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지..... (채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니까. 혁명하지 않아도 난..... (사이) 모든 게..... 내 주위의 모든 게 뒤쪽박쪽이야. 니가 알고 있단 나라는 애는 지금의 나랑은 많이 달라.

지석 채원 희망을 가져볼 적 있지? 지석 응? 채원 난 알아..... 희망을 갖는 게 두려워. 자꾸 이런 아냐, 하면서도 믿고 싶어지거든. 그게 너무 약하게 만드는 거 같아.

지석 채원 그만 가볼래? 지석 (말어나며) 그래, 중 쉬고나서..... 나중에 연락하자. 채원 아냐, 이젠..... 정말 널 만날 용기가 없어. 지석 (표정이 굳어지며)채원아. 채원 그날, 예전의 나로 기억해 줘. 그 위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S# 123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 (저녁)

로비에 앉아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씨니. 초조한 표정이다. 가랑에 있는 휴대폰 벨이 울리지만 받지 않는다. 옆에 앉아있는 미국인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씨니를 힐끔 바라본다. 씨니, 계속해서 벨이 울리자 휴대폰을 꺼내 배터리를 뽑아버린다.

S# 124

씨니의 집 / 거실, 씨니의 방 (저녁)

지석이 현관이 열린으로 들어선다. 부엌 쪽으로 가다가 위층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계단을 올라간다. 씨니의 방 앞에서 잠시 소리를 듣다가 문을 열어본다. 씨니의 전 동거남이 잠기들을 뒤지고 부수고 있다. 남자와 눈이 마주건 지석, 불라지만 침착해 보이려한다.

지석 지금 뭐 하는 거죠? 남자 아..... 아래층 사시는 목인가 보네. 지석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자 나, 민숙이, 아니 참 씨니하고 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예요. 됐습니까? 지석 이유가 어찌됐든 여기서 나가주세요. 남자 (피식 웃으며) 난 그냥, 뭘 좀 찾으려 온 것 뿐이야. 금방 나갈테니까 신경꺼요. 지석 자꾸 이런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 (웃으며) 영환? 불러봐요. 그래봤자 씨나가 물어봐야 할 것?

남자 씨나 애인이지 변호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가지 분명하건 씨는 지금 가스중독
자야, 알겠어? 내 돈 갖고 뭐라도 알아. (약산 시계를 들여 벽에 걸린 씨나의 뽀사진을
향해 던진다)

영자가 시계를 맞아 깨지는 순간 지석이 남자의 팔을 잡는다.

남자 이거 왜 이래?

지석 그렇다고 남의 것을 함부로 부셔요?

남자, 지석의 팔에서 벗어나려다가 지석을 안고 바닥에 쓰러진다.

남자 에이 씨판! (스탠드를 들어 지석의 머리를 내려친다)

지석, 머리를 움켜잡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남자, 일어나서 죽을 크게 준다. 지석, 피를 흘리며 기절할 듯 일어나지 못한다.

남자 (지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봐, 이봐요. (안기척이 없자) 그러게 왜 남의 형에 깨드냐
랑야. (난감한 표정)

전화벨이 울린다. 남자, 전화를 받는다.

S# 125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 (광명 시각)

씨나, 준비 한 구역에 서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다.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 씨나.

S# 126 채원의 집 (저녁)

채원, 머리가 췌은 채 가운을 입고 베란다에 서서 LA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S# 127 씨나의 집 / 거실 (밤)

씨나가 침으로 돌아선다.
동거남이 거실 창 앞에 서서 우유를 올째로 마시고 있다.

남자 (씨나의 전 가운을 보고) 어디 여행이라도 갈 작정이었나 보지?

씨나 어디 있어?

남자 아래층 애인? 네 방에 있지. 좀 다쳤어. 병원에 가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씨나 (우성하게 쏘아보며)

남자 노력해보지마. 난 그럴 생각이 없어. 그 친구가 먼저 말한 거야.

씨나 (거실에서 돈이 든 봉투를 꺼내어 바닥에 내던지며) 빨리 찾아가.

왜 그래? 난 만큼 돈을 받는 건데 이런 취급을 하다니.
 씨니, 남자의 결을 지나려는데,
 이러는 나도 마음 편한 거 아냐. 난들 기분이 좋겠어?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말야.
 (영취 서서) 사랑? 내가 당신 사랑했던 거 같애?
 (돈 봉투를 건으려다가 씨니를 바라보며)?
 씨니
 미안하지만 아냐. 아니었어. (웃음하듯 웃으며) 내가 뒷 문에 당신 따라서 미국에 온 줄 알아? 돈 때문이야. 돈. 이제 할 거 아냐.
 남자, 대꾸하지 않고 전철히 하리를 문혀 바닥의 봉투를 주워 일어나면서 느닷없이 씨니의 영광을 후려친다. 씨니, 바닥에 쓰러진다. 영취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남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 나도 참, 별수 없는 년이구나.
 (몸을 일으키며 바닥에 앉은 채) 사랑..... 미안한 마음이 중이었었는데. (피식 웃으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져서 좋네. 이 정도면 비긴 거겠지.
 계단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지석이 씨니의 권총을 들고 남자에게 겨누며 다가온다.
 지석의 이마에서 피가 한줄기 흘러내린다.
 남자
 (황당하다는 듯이) 이게 미치겠네, 정만.....
 지석, 만원이 남자를 노려본다.
 남자
 이게 봐요. 난 당신한테 감정 없어. 아관 무의식중에 그렇게 된 거야. (사이) 정만 쏘지는 않겠지?
 지석
 (계속 총을 겨누고 다가오며)
 남자
 (조금 겁에 질린 듯) 우리, 한국 사람을끼리 이리저리 말시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말야.
 씨니
 (바닥에서 일어나서) 지석씨... 총 내려놔.
 남자
 그래, 그래. 이런 민숙이랑 나 사이의 문제라구. 남의 집안 문제에 끼어서 좋을 게 뭐 있어?
 씨니
 지석씨.
 지석
 (단호하게) ...나, 내려놔줘요.
 남자, 지석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춰 있다.
 씨니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 있다.
 남자
 그래, 싸, 싸버려.
 (북라며) 뭐?
 남자
 위해, 싸버려라니까.
 남자
 지석, 피가 눈에 들어갈 손으로 영광을 뒤어낸다. 총을 든 손끝이 떨린다.
 남자
 (물부짓 듯이) 별 그 자경으로 만든 북을 그냥 놔 둘 거야? 싸서 별신이라도 만들란 말

(F1) 카운터 앞 쪽 테이블에서 혼자 햄버거를 먹고 있는 채원.
시간 경과를 느껴주듯, 채원의 눈치림에서 그를 눈여겨본다.

(링게 F.O)

원내에 적막이 흐른다.
씨니, 지석의 손을 끌어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싼다.
누워있는 씨니의 옆으로 지석의 눈물이 떨어진다.
큰 듯 한 자세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두 사람.

씨니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지석

(눈을 감으며)아, 편하다.

씨니

씨니, 지석의 다리를 베고 천천히 눕는다.

지석

(고개를 끄덕인다).....

씨니

나, 지석씨 다리 좀 빌려도 될까?

원동 안 그렇게 함없이 앉아 있다가,
두 사람, 마주보고 어색하게 웃는다.

씨니

에이, 그런 건 용기라고 하는 거 아냐.

지석

어차피, 그럴 용기도 없어요.아시잖아요.

씨니

정말 씩 생각이었어?

지석

.....

씨니

.....웃음이 나오나보지?

지석

(고개를 들고 힘겹게 웃어 보이며) 괜찮아요.

씨니, 지석의 옆권을 보다가 손을 들어 눈가의 피를 닦아준다.

씨니가 천천히 그의 옆에 다가가서 앉는다.
지석, 벽에 기대어 앉는다. 힘이 드는 듯 고개를 떨군다.

거 미안해. (나간다)

부자

참 생각한 거야. (돈을 주머니에 넣고 꾸벅꾸벅 밖으로 나가며) 아래층 양반, 다치게 한

부자, 안도의 한숨을 쉰다.

씨니, 지석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건네 받는다.

지석,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손을 든 손을 천천히 내린다.

부자

이, 이것들이 정말...

씨니

괜찮으니깐요. 저 인간을 강도로 신고하면 정읍양반이니까 괜찮아.

부자

(난랑한 표정으로) 도대체 왜를 이라는 거야, 응?

아!

주말장이 그녀의 모습을 보다가,

주말장 You like some more chili? (훨리 더 드릴까요?)

채원 No, thanks. (고맙지만, 괜찮아요.)

주말장 Why are you alone, what happened to your friend? (왜 오늘은 혼자니까, 친구는 요?)

채원 He went to Seattle. He may not come here like he used to. (시애틀에 갔어요. 전처럼 오지는 못할 거예요.)

주말장 Damn, he left you alone here? (이런, 그런데 아가씨를 두고 간 겁니까?)

채원 (말없이 웃어 보이며)

S# 129

말속국 / 스튜디오 안 (밤)

말속을 시작하는 채원, 편지를 꺼낸다.

채원 오늘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신 사연 하나 읽겠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영아가 LA의 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S# 130

마사지 룸의 영 (낮)

영의 채원 목소리가 O.L. 된다.

채원 (E) 한창 사랑을 하고 아들만큼게 좋아해야 할 나를 생각해 그때마다, 곁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지는 못했지만, 나약한 영아의 모습을 곁에서 보게 하며 한숨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생각이 공들공들 울고 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남자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책감과 후회보다는, 나의 지친 그림자를 끝의 아니게 나에게까지 드리워 왔다는 사실이 이 더 큰 고통이었다.

리켜 사랑 앞으로 전전히 넘어가는 씨니.

사랑의 꿈이 멀어 있다. 씨니, 한동안 그 자리에 힘없이 서 있다가 되돌아간다.

채원 (E) 믿지 않은 따뜻한 눈에, 출가본한 마음으로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힘을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날도 많지는 않지만, 영아도 노력하게. 영아 인생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말야.

(O.L.)

S# 131

씨니의 집 / 정원 (낮)

씨니가 썬담 의자에 앉아 있다.
채원이 정원으로 들어온다.

씨니 (미소지으며) 오랜만이네.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아요.

반송을 하고있는 채원.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 있고 표정도 자연스럽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모습.
 옳지 않지만 반송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함께 했어요. 사랑을 하는 자의 입
 장에서 오히려 배웅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사이) 기다림과 체념,
 그 이물을 속에서 사랑을 형편 가는 과정 또한, 소중한 사랑을 형편 않는 자세라는 고통
 을 얻었어요. 그동안 관상 있게 정취해주시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채원

채원의 표정이 흐트러진다. 좋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씨나의 시선을 피
 한다.
 씨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채원의 손을 잡아준다.
 채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려도린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이 있는 정원을 밝게 비추고 있다.

씨나

채원

씨나

두 사람, 잠시 말이 없다.
 (채원을 바라보며) 조금 지친 거 같아. 그렇게 보여.

 자기한테..... 그들이 어울리지 않아. 벗어나도록 해봐. 좋지 말고.

누군 사랑한다는 게 말야. 불처럼 격렬히 타오는 것도 있고, 은근하게 찾아오는 것도 있
 고..... 참 가지가지야. 그런데..... (사이) 지금 기억나는 것은 힘들게 기다리고, 어떻게
 체념했던 내 모습을 뿐 이거야. 그게 말야, 참 티끌이하고 싶지 않은 건데도 특 그렇게
 돼. (사이) 아마 그런..... 기다림, 체념 그런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모습이기에 때문 아냐
 까 싶어.

씨나

채원

넌 나라도 지던 거 같은데.

 난..... 지금까지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징크스가 있었어. 이제 그
 새로운 사랑도 해보면 좋겠고.

씨나

채원

씨나

(거울 쪽에 향여있는 박스들을 보며) 어디..... 가시나봐요?
 요즘, 난 말야. 새로운 용에 가서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살아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
 연서 사는 거지.

채원

씨나

환 좋네. 너무 바빠게 허락처럼 사는 것도 좋은 건 아냐. 가끔씩은 쉬도 돌아보고, 그러
 화도 보고.....
 (애써 웃어 보이며) 예, 좋아요. 학교 유학하고 나니까 시간도 많아요. 친구도 만나고 영
 요즘 어때?
 네.....

채원

씨나

채원

없대. 랑고 있지?
 (맥주 캔을 따서 건네주며) 저녁에는 무척 바빠가봐. 요즘 세탁소 쉼업 하느라고 정신이
 네. 추세요.

씨나

채원

씨나

(의자에 앉으며) 탁씨가 좋네요.
 맥주 한잔 좋까? 아직 한낮이긴 하지만.

채원

거리에서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채원.
혹인 소년들이 터진 수도관 주변에서 물잔단을 치며 즐거워한다.
채원, 그를 향해 조심히 다가와서 손을 잡고 그쪽으로 끌어간다.

S# 137 거리 / 세탁소 앞 --- 시애틀 (날)

소리 (E)(써니) 미국 땅을 처음 밟을 때처럼, 정말 다들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다
시 만나야 한다는 희망은 이제, 더 이상 설박하게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
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강박관념 같은 것이었어.
시애틀의 다공 타공 거리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세탁소.
아직 간판 없이 'OPEN SOON'이라는 써인이 걸려있다.
지석과 병공, 그리고 지석의 형이 물건을 훔쳐야 먹고 장리를 하고 있다.

S# 136 세탁소 --- 시애틀 (날)

소리 (E)(써니) 이렇게 험해지는 것은, 내가 찾았던 그리운 서울로 돌아간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도록 저 자신 혼자 해왔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일거예요.
채크 인을 하고 있는 채원.

S# 135 콘스탄체레스 운하 / 국내선 (아침)

소리 (E)(써니의) 가슴이 뻘뻘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서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서 채원.

S# 134 콘도미니엄 앞 (아침)

소리 (E)(라디오) 다음 소개해드릴 편지는요, 미연이 엄마라는 꿈의 사연인데요. '여행을 떠나
면서'라는 제목을 붙이셨네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채원.
노트북을 열고 자리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켜다.
새벽의 빛이 스며들어 채원의 얼굴에 비친다.

S# 133 채원의 집 (새벽)

지금까지 행린 적이 없습니다. (스위치를 끄고 헤드폰을 벗는다)
채원, 담배를 꺼내어 물려다가 담배 갑을 휴지통에 버리고 일어선다.

--- 사진 --- 9월 중 원 똘아이가 한옥 전 대청 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 채원과 지석이 뉴욕의 세탁소에서 친구를, 엑시칸 중업원과 기년 촬영.
 --- LA의 린 방앗간 간판.
 --- 마사지 룰라의 여자를.
 --- 라디오 프리아와 FM 서를 모고.
 --- 기타 주, 조연들의 일사 모습을.
 --- 웨스턴 거리의 맥도널드 벤치에 앉아 있는 한인 노인들.
 --- 운항 철사에 걸린 'Welcome to Los Angeles' 싸인 보드.

사진들과 함께 앤드 크레딧.

그녀가 서 있었던 거리 풍경 보여지다가 린게 White F.O.
 음악 흐르면서
 코트를 걸쳐 입은 싸니가 천천히 현을 움직여 프레이밍 아웃되고,
 거리를 지나서 사람들이 싸니의 모습을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
 레인 코트를 찾아 꺼낸다.
 특별한 서를 밖에서 맞이 않는 가벼운 차림의 싸니, 가방을 열고 옷가지를 뒤적이다가
 백시가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서서 거리가 낡은 듯 주변을 돌아본다.
 싸니, 백사에서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내린다.
 서울의 어느 한적한 거리.

S# 138 거리 --- 서울 (아침)

엔딩 음악 시작되고.

소리 (E)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느낌이예요.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나의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이제 저는, 그 애를 되찾으려 간
 다기보다는, 그 애에게 선택되어지기 위해 할렘로갑니다. 저의 희망은, 지금 이대로, 때론
 은 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채원, 입구 쪽에 서서 우리장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다.
 가게 안 쪽으로 몸을 멈추고 쉬고 있는 지석의 모습이 보인다.
 채원, 그 자리에 선택 지석을 바라본다.